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Community Garden focused on Urban Publicness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유 시 범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 연구

지도교수 조경진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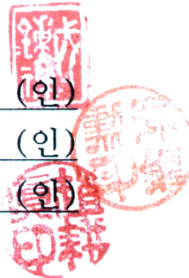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유 시 범

유 시 범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成鍾祥
孫鎬勳
조 경 진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유 시 범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2월

위 원 장 이정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 위 원 장 김영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조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초빙 심사 위원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국 문 초 록

도시농업은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도시는 도시농업을 전개해가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외곽에서 소규모로 시작했던 도시농업은 이제는 도시 한복판에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안에 양적으로 많아지고 면적으로 넓어진 도시텃밭은 도시 공간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는다. 도시 공공 공간으로서 텃밭의 의의에 대한 문제가 환기된다.

공공성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 분야에서 연구해온 개념은 한정되어 있다. 물리적인 공공성의 요소와 비물리적인 공공성의 요소가 연구의 대상이다. 도시공간연구 분야에서 도시공공성의 개념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공공성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이지만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사회적 공공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현대적 개념의 공공성은 도시공공성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공공성의 관점으로 도시텃밭을 바라본다. 도시공공성의 여러 요소들을 바탕으로 도시텃밭의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는 관련 이론 고찰과 개념정립, 분석의 틀 설정과 대상지 현황 분석 그리고 대상지 실증 분석을 통해 결론에 이른다. 이론고찰은 도시농업과 도시공공성 이론을 통해 도시텃밭의 공공적 개념을 확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의 틀은 이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정립하였고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도시텃밭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도시농업의 유형 가운데 공동체 텃밭과 도시농업공원 텃밭에서 세 장소를 선정하였다. 특성 분석은 분석의 틀을 근거로 현장조사와 함께 텃밭에 참여하는 경작자와 도시농업 전문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시텃밭으로의 접근성은 장

소형성의 태생적 배경에 의해 한계점을 갖는다. 도시농업의 경향이 도시 유희지에서 텃밭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텃밭은 도시공간의 하나로 온전히 인식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다만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해가고 있다.

도시텃밭의 개방성은 장소의 사용자 행위에 의해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시텃밭의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농사 행위 위주의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개별적인 노동활동이 우선되면서 교류가 부족한 점과 농작물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폐쇄성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텃밭의 쾌적성은 텃밭의 이미지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었다. 내부 참여자들은 쾌적하게 느끼며 만족한 반면 외부 방문객은 쾌적하게 느끼지 못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경작자와 관계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과 텃밭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 공간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도시텃밭의 지역성은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 도시텃밭들은 기존 도시의 기억에 없었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발견되거나 버려진 땅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도시공간이 텃밭에 의해서 재발견되고 새로운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의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주체의식과 개척정신이 필요한 일이다.

비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시텃밭의 주체성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주체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텃밭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도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주체의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공간 전체로 확대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유도하면서 개인의 주체의식을 이끌어내는 한편 이를 전체 구성원으로 확산하는 주체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공동체 측면에서의 도시텃밭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많은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관련한 공동체는 내부 자생적인 공동체와 외부의 참여로 일어나는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반면 이들 활동이 개별성을 띠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도시텃밭을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매개체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유기적으로 계획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인 측면에서는 운영의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견고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주체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여 도시텃밭과 관련한 다양한 계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는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주체의식이 높고 다양한 공동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전가능성은 높다.

본 연구는 도시공공성의 관점으로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도시 공공 공간으로서 현재의 도시텃밭은 많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도시농업의 이슈가 과열되고 도시텃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이유때문이기도 하다. 도시 안에 텃밭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현재의 다양한 양상과 현상을 이해하고 도시의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지금의 역할이다.

주요어: 도시텃밭, 도시농업, 도시공공성, 도시농업공원, 공공성
학 번: 2011-22348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3. 연구의 구성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3
1. 도시농업의 연구	13
2. 도시공공성의 연구	17
3. 연구의 착안점	21
제2장 이론적 고찰	23
제1절 도시농업의 이해	23
1. 도시농업의 개념	23
2. 도시농업의 유형과 특성	26
3. 도시텃밭의 이론적 쟁점	32
제2절 도시공공성의 이해	36
1. 도시공공성의 개념	36
2. 도시공공성의 특성	42
3. 도시텃밭의 공공성	47
제3절 소결	48

제3장 분석의 틀과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	49
제1절 분석의 틀	49
1. 분석의 방향 모색	49
2. 분석의 틀	52
3. 조사항목의 구성	54
제2절 도시텃밭의 일반적 현황	56
1. 노들텃밭의 현황	56
2. 갈현텃밭의 현황	62
3. 상암두레텃밭의 현황	66
제3절 도시텃밭의 일반적 특성	71
1. 현장 참여자 중심 공동체계	71
2. 내부지향적 행위의 외부확산	72
3. 자발적인 공간계획	73
 제4장 도시텃밭의 특성 분석	 74
제1절 물리적 측면의 분석	74
1. 접근성 측면	74
2. 개방성 측면	86
3. 쾌적성 측면	97
4. 지역성 측면	102
제2절 비물리적 측면의 분석	111
1. 주체성 측면	111
2. 공동체 측면	120
3. 협력적 과정 측면	127
제3절 연구결과의 요약	133

제5장 결론	134
제1절 연구의 결과 및 제언	134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35
참고문헌	137
부록	142
Abstract	14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7
〈그림 1-2〉 연구 흐름도	12
〈그림 3-1〉 도시공공성의 요소 분류	49
〈그림 3-1〉 노들텃밭의 위치	56
〈그림 3-2〉 노들텃밭 모습	57
〈그림 3-3〉 노들텃밭 모습	57
〈그림 3-4〉 갈현텃밭의 위치	62
〈그림 3-5〉 갈현텃밭 출입구	63
〈그림 3-6〉 갈현텃밭 모습	63
〈그림 3-7〉 갈현텃밭 씨앗들 협동조합	64
〈그림 3-8〉 갈현텃밭 비빔밥 만들기	64
〈그림 3-9〉 상암두레텃밭의 위치	66
〈그림 3-10〉 상암두레텃밭 입구	67
〈그림 3-11〉 상암두레텃밭 개인텃밭	67
〈그림 3-12〉 상암두레텃밭 교육	68
〈그림 3-13〉 상암두레텃밭 장터	68
〈그림 3-14〉 정기 운영회의	71
〈그림 3-15〉 프로그램 회의	71
〈그림 3-16〉 이웃랄랄라 운동회	72
〈그림 3-17〉 소소모모 카페	72
〈그림 3-18〉 텃밭 내 계단 만들기	73
〈그림 3-19〉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진입 계단	73
〈그림 4-1〉 자전거로 방문하는 경작자	77
〈그림 4-2〉 수확시기 보고 후 자동차 이용	77
〈그림 4-3〉 텃밭 내부 보행로	80
〈그림 4-4〉 텃밭 안내판	80
〈그림 4-5〉 경작지 표식	80
〈그림 4-6〉 갈현텃밭의 경사지와 평지	81

<그림 4-7> 노들텃밭 중앙 보행로	81
<그림 4-8> 상암두레텃밭 주변 아파트	82
<그림 4-9> 노들섬에 고립된 노들텃밭	82
<그림 4-10> 노들텃밭 출입구	87
<그림 4-11> 갈현텃밭 출입구	87
<그림 4-12> 상암두레텃밭 출입구	88
<그림 4-13> 갈현텃밭 비공식 입구	88
<그림 4-14> 노들텃밭 경계부 펜스	90
<그림 4-15> 정리되지 않은 철조망 펜스	90
<그림 4-16> 상암두레텃밭 여유 공간의 부족	91
<그림 4-17> 노들텃밭 벤치와 원두막	91
<그림 4-18> 갈현텃밭 원두막	92
<그림 4-19> 노들텃밭 보행로를 이용한 행사	92
<그림 4-20> 사유 경작구역 임의로 경계 설정	94
<그림 4-21> 경작지 텃밭의 통행로 침범	94
<그림 4-22> 노들텃밭 관리센터	98
<그림 4-23> 갈현텃밭 관리센터	98
<그림 4-24> 주변에 쌓여 있는 농사 부산물	100
<그림 4-25> 노들텃밭 생태화장실	100
<그림 4-26> 멀리서 잘 인지되지 않음	105
<그림 4-27> 사유지와 구분되지 않음	105
<그림 4-28> 버려진 땅을 채워가는 텃밭	107
<그림 4-29> 사람이 만드는 장소의 의미	107
<그림 4-30> 도시풍경과 조화로운 전원풍경	109
<그림 4-31> 북한산을 바라보는 갈현텃밭	109
<그림 4-32> 유기농 음식 만들기	113
<그림 4-33> 소일거리를 위해 경작일 참여	113
<그림 4-34> 인텔리겐치아 동아리 공동체	122
<그림 4-35> 로드스폴라 공동체	122
<그림 4-36> 정기 활동 모내기	125

〈그림 4-37〉 외부에서 참여한 공동체 활동	125
〈그림 4-38〉 텃밭 운영회의	130
〈그림 4-39〉 텃밭 프로그램 공동 협의	130

표 목차

〈표 1-1〉 도시텃밭 대상지 일반사항	8
〈표 1-2〉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자	9
〈표 1-3〉 연구의 방법	11
〈표 1-4〉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16
〈표 1-5〉 도시공공성에 관한 연구	20
〈표 2-1〉 도시농업의 유형	27
〈표 2-2〉 도시농업의 공간적 유형분류	28
〈표 2-3〉 도시공공성의 개념과 요소	46
〈표 3-1〉 선행연구의 도시공공성 관련 요소	52
〈표 3-2〉 분석의 틀	54
〈표 3-3〉 심층인터뷰 분석 내용	55
〈표 3-4〉 도시농업공원의 차별화	58
〈표 4-1〉 심층인터뷰 접근성 측면의 질문내용	74
〈표 4-2〉 심층인터뷰 개방적 측면의 질문내용	86
〈표 4-3〉 심층인터뷰 쾌적성 측면의 질문내용	97
〈표 4-4〉 심층인터뷰 지역성 측면의 질문내용	102
〈표 4-8〉 심층인터뷰 주체성 측면의 질문내용	111
〈표 4-8〉 상암두레텃밭 운영지침 협약서	118
〈표 4-9〉 심층인터뷰 공동체 측면의 질문내용	120
〈표 4-9〉 심층인터뷰 협력적 측면의 질문내용	12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도시농업은 범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농업은 단순히 농사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건강하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한다. 도시민은 경작을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며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 도시에서 경작을 하는 개개인은 체험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생산활동의 과정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도시민 모두에게 교육의 역할을 한다. 도시농업은 이외에도 농업의 기능인 생태계 유지, 홍수조절을 비롯해 도시 내 빗물관리, 환경보전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이 발생하는 현장은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간주되고 기능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삶을 위해 도시농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에서 농업이 행해지는 이유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식량 확보, 공동체 회복, 환경보호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도 농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났고 그 활동을 위해 도시텃밭 역시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2012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도시텃밭이 16배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100여개였던 도시텃밭이 2012년에 1,673개로 16배 늘어났다. 2011년 도시텃밭의 면적은 29.1ha이고 2012년은 84.2ha로 2.9배 늘어났다. 텃밭은 1구획 당 6.6~16.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약 1만3000가구가 텃밭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12월 기준 가구당 도시텃밭 면적 0.3㎡를 2020년까지 가구당 3.3㎡의 도시텃밭을 보유한다는 목표로 도시농업 활성화

1) David Tracey, 『Urban Agriculture: Ideas and Designs for the New Food Revolution』 (Gabriola Island, BC : New Society Publishers, 2011), pp.17-26.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농업교육 실시, 도시농업위원회 발족 등 주도적으로 도시농업사업계획을 실현해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도시농업은 도시 내에 있는 농장과 유휴지를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이런 열정과 관심의 경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도시민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다양한 목소리로 현상을 해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도시지역의 황폐화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의 도시들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공동체 기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성 상실에 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도시환경 문제는 도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도시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 시간이 늘었고 체험과 교육, 생산과 참여를 위한 시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웰빙이 유행하며 몸이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던 도시사회는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한 치유라는 개념으로 편승하고 있다. 정신적인 건강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기류와 함께 도시농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민은 역설적으로 비도시화를 지향하는 것이다.²⁾ 지금 일어나는 도시의 경작활동은 우리가 흔히 알던 농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일부 도시민은 과거 농촌사회의 그것과 비슷한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고자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도시농업을 발판삼아 진행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민들의 현상은 사회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고 잠재적 한계를 극복하면 사회학적으로 발전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³⁾

2) 역도시화는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전입자 수를 초과하여 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의 인구가 도시 밖으로 벗어나는 현상으로 '도시화'의 반대개념이다. 비도시화(非都市化)는 도시 안에서 도시화에 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손슬기,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71-72.

(1) 도시농업과 도시공간

이렇게 도시공간에서 여러 형태로 생겨나는 도시농업은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농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화두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도시농업이 공간과 접목하고 도시 한복판의 우리주변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도시농업이 도시환경 및 도시공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도시를 다루는 환경과 조경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시점이 되었다. 경작할 땅을 찾아 배회하는 도시농업의 양상을 조경이 보듬어 도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꽤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의 폐쇄적인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는 도시민에게 도시농업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규모와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시농업은 철길 옆, 공원 외곽, 마당, 베란다 등 자투리 공간에서 경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무분별하게 일구어진 땅이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원에서 경작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어서 불법경작물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유행처럼 번진 경작활동은 결국 합법한 장소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많은 도시농업 전문가들은 그동안 합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연구해왔다. 그 결과 건물의 옥상, 건물과 골목길, 도심지 유휴 공간, 근린공원과 산등성이 주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텃밭은 공간을 찾아 양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는 도시공원으로까지 확산하였다. 최근에는 그에 맞게 도시농업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도시공원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2) 도시텃밭과 도시의 공공성

양적으로 많아진 도시텃밭은 한편으로는 질적인 문제를 환기시킨다. 도시공간을 점유해갈수록 그 문제는 커진다. 법이 개정된 이후 도시공원 안으로까지 도시텃밭이 시설로 들어섰다. 도시농업의 활동을 돕는 시설이지만 도시텃밭이

모두를 위한 공간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부 도시텃밭은 지역공동체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의 공동체로 격화된 양상도 일부 나타난다. 도시텃밭은 양적인 확장에 따라 도시의 공공성을 위한 책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농업공원이 대두되고 도시 주제공원으로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농업의 공동체텃밭은 초기에 소수의 사람이 모여 사적으로 텃밭을 경작하는 유형이었다. 그 공간의 위치는 대부분 도시 외곽이었다. 그런데 그 유용성에 힘입어 도시의 유휴지와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제 도시의 공적공간으로 확장한 도시농업은 사적으로 경작하는 활동 이외에 도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텃밭을 사용하는 주민이나, 지역전문가, 농업전문가 그리고 공간을 다루는 조경가 등에게 도시농업 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 공공성의 연구는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다. 물리적 측면의 공공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회적 참여와 의사결정과정 등 비물리적 측면의 공공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협력, 가치공유와 합의형성,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은 공간의 공공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들의 역할은 공공성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도시농업공간은 이러한 공공성 논의와 밀접하다. 도시텃밭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그곳을 경작하는 주체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많은 도시텃밭들이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공공성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도시텃밭과 관련한 참여자들 스스로도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외부지향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도시농업과 관련하는 연구들은 도시텃밭의 효용가치를 찾아냈고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근래에는 도시 내의 텃밭은 도시민에게 유용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전제가 제시되고 있다. 국내의 현실도 이를 반영한다. 전국의 지자체는 도시농업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전개해가고 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과도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는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창출이 주된 관심사였다. 도시 내 유휴부지들을 생산가능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은 도시경관에 이로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시농업이 도시 곳곳에 점적으로 영역을 구축하고 도시농업공원과 같이 큰 비중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기존의 관점과는 다소 다르다. 개개인의 텃밭은 공유할 수 없는 사적영역이므로 공공 공간에 사적영역을 구축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텃밭이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때 기존 공공 공간과는 다른 특수한 조건들이 요구될 수도 있다. 현재 도시농업은 올바르게 필요한 것이라는 전제로 도시로 무분별하게 양적으로만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도시텃밭과 공공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도시텃밭은 그곳을 경작하는 확실한 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활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텃밭에서는 그 대상을 공간의 주도적인 주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도시 내의 경작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적 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두루 충족시켰을 때 비로소 공공적인 도시공간이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텃밭에 참여하고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의 경험으로부터 도시공공성과 관련한 현장의 논의를 담아내고 도시텃밭이 가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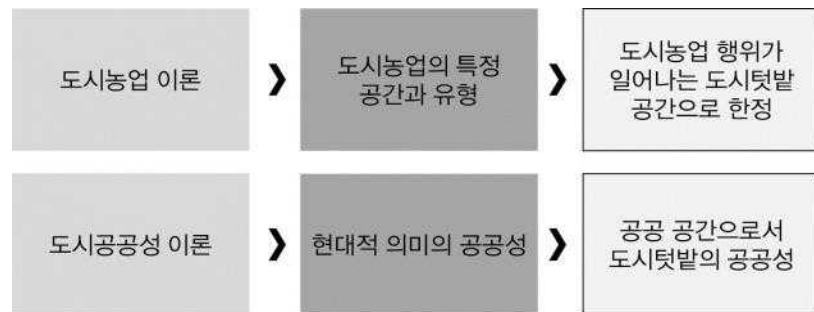
(1) 내용적 범위

도시농업은 도시의 농업에서 파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시농업의 용어는 경작을 하는 행위로서의 도시농업과 공간에 물리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형태로서의 도시농업을 구분하였다. 물리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도시농업의 형태는 ‘도시농업공간’ 또는 ‘도시텃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도시농업은 ‘농업(農業)’이라는 산업 또는 직업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대신 행위 차원인 ‘농사(農事)’로 이해하였다. 농사는 경험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직업적인 행위와 함께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문화적 현상의 행위 모두 포함하였다.

도시농업공간은 구체적인 도시농업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도시텃밭은 도시농업공간에서 파생한 공간유형의 종류이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연구와 궤를 같이하지만 행위 중심으로 전체를 보기보다는 도시텃밭이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보는 것이다.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작 행위를 포함한 여러 현상들을 통해 도시텃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시텃밭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도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현황이 연구의 내용에 포함된다. 분석의 틀은 도시공공성의 기준으로 제시된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도시공공성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공공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공공성의 정의를 고찰하였다. 공공성의 연구는 정치학 및 행정학의 심도 있는 논의로 접근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시공간에 영향을 주는 공공성의 경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것과 함께 기존 도시공간연구에서 고찰한 공공성을 고찰하여 도시적 공공성을 이해하였고 도시텃밭과 관련하는 도시공공성을 정의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농업의 공간 중 비교적 도시의 공공성과 관계가 긴밀한 장소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도시텃밭을 연구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갈현텃밭, 노들텃밭, 상암두레텃밭이다.

노들텃밭은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도시농업공원으로 2년째 운영되고 있는 장소다. 2014년에도 3년차를 맞아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공간의 유형 중 공원으로서 공공적 성격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장소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노들텃밭에서 공공적인 도시텃밭을 지향하는 실험과 노력이 계속 된다는 점에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갈현텃밭은 불법으로 경작되던 것이 도시농업공원을 위한 임시 공동체 텃밭으로 허가가 되었던 곳이고 향후 도시농업공원 조성이 예정된 곳이다. 도시농업 전문가와 관련 지역 단체가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온 곳이다.

상암두레텃밭은 공동체 텃밭의 유형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텃밭으로 조성한 것이고 도심 속 텃밭공동체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도시텃밭이 공동체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상암두레텃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 공간의 범위에서 물리적인 요소와 비물리적인 요소를 분석하였지만 장소별로 상황이 다르고 유형이 다소 다르다. 이점은 연구자의 제량으로 연구에 적합한 항목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조사항목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 텃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텃밭과 관계된 도시농업의 전문가를 연구대상으

로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대상지는 공통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경작자들과 여러 경작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전문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더 나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 운영회의 등을 하는 노력이 있는 점도 대상지 선정의 이유이다. 종합적으로 이들 텃밭은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과 분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표 1-1〉 도시텃밭 대상지 일반사항

구분	노들텃밭	갈현텃밭	상암두레텃밭
유형	도시농업공원	도시 공동체 텃밭 도시농업공원 예정	도시 공동체 텃밭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146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58-1 일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91
조성시기	2012년 5월	2012년 8월 (이전에 불법경작)	2012년 3월 (이전에 불법경작)
총면적	약 20,000㎡	15,694㎡	2,300㎡
구획면적	(600구획)	(300구획)	(65구획)
모집인원	600명	500명	60명~70명
신청자격	서울시민	서울시민	서울시 마포구민

(3) 심층인터뷰 범위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각각의 도시텃밭에 참여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2〉와 같이 조성·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운영위원회 대표, 위탁 관리 대표, 조성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담당 공무원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하였고, 경작 단체 측면에서는 도시농업 전문단체에서 지역 단체와 일반 단체를 포함하여 인터뷰 하였다. 도시텃밭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경작활동과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단체와 프로그램만을 실행한 단체를 나누어 인터뷰하였다. 그리고 개인 경작자를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그밖에 도시농업 전문가를 더하여 총 23인을 심층 인터뷰 하였다.

〈표 1-2〉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분	심층인터뷰 대상자
조성·운영·관리 (6인)	운영위원회(2인), 관리(2인), 조성에 참여한 전문가(1인), 담당 공무원(1인)
경작 단체 (5인)	지역 도시농업단체(3인), 일반 도시농업단체(2인)
프로그램 및 경작 단체 (6인)	경작과 프로그램 병행 단체(4인), 프로그램 참여 단체(2인)
시민 참여 경작(4인)	경작자 대표 및 개별 경작자(4인)
기타 전문가 (2인)	기타 도시농업 전문가(2인)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도시공공성의 관점으로 도시농업공간 중의 한 종류인 도시텃밭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시텃밭의 현황을 파악하여 특성을 찾아내고 공공적인 도시텃밭을 위한 조건을 탐색한다. 이론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도시농업에 대한 것이다.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특성을 고찰하여 현재의 상황과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을 연구한다. 도시농업의 행위적인 차원과 함께 공간적 차원의 도시농업에 대해 고찰한다. 다른 하나는 도시공공성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인 공공성의 개념에서 도시공간의 공공성에 이르는 이론을 고찰한다.

도시농업의 이론부분에서는 도시텃밭에서 발생하는 현황과 이슈를 파악함으로써 도시농업 공간이 갖는 현재 상황을 점검한다. 연구대상은 도시텃밭이다. 도시텃밭 중 비교적 도시적 차원의 공공성이 요구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로 선정하였다. 또한 반드시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간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참여와 경험이 농축된 과정을 거친 공간으로 지역공동체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텃밭을 포함하였다.

각각의 연구대상에서 연구할 내용은 이론 고찰에서 나타난 도시공공성의 요소에 대한 현장의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도시텃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조적인 시스템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텃밭과 공동체와의 관계 역시도 분석의 대상이다. 여러 주체의 참여자 시각에서 도시텃밭이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써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공공성의 관점으로 도시공간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도시텃밭이 표출하는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는 크게 이론고찰과 선행연구검토, 분석의 틀 설정, 현황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나뉜다.

먼저 이론고찰은 연구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최근 학계에서 정의하는 도시농업과 도시공공성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다. 선행연구 자료를 중점적으로 참고하면서 각종 문헌자료, 관련 기관 인터뷰 및 언론 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의 틀은 이론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고안한다. 도시공공성의 측면에서 고려된 요인들과 도시텃밭 공간의 특성을 근거로 조사항목을 도출한다.

현황조사와 특성분석은 분석틀을 통해 설계한 현장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고 분석 및 해석하는 것이다. 각각의 도시텃밭에 참여하고 이용하는 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구축한다. 현장 분석은 직접참여관찰의 방법과 설문 및 인터뷰의 방법을 병행한다. 인터뷰 방법은 도시텃밭과 관련한 실무자들을 비롯해 대상지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도시농업의 전문가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공공성의 여러 조건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텃밭의 공간특성을 도출한 것을 결론으로 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바라본 도시텃밭의 공간적 특성과 현황을 요약하고 그 발전가능성과 한계점을 서술한다.

연구의 방법의 개괄적인 사항은 <표 1-3>과 같다.

〈표 1-3〉 연구의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세부 사항
도시농업 개념과 특성	문헌조사	·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시농업 양상 파악 · 전개과정에서의 특징, 도시농업의 공간적 분류
도시공공성 개념과 특성	문헌조사	·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시공공성 개념과 전개과정상의 양상 파악, 관련 요소 도출
도시텃밭 현황과 특성	현장조사, 인터뷰	· 현황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기본 현황 파악 · 대상지의 현장조사와 예비인터뷰를 통해 특성 분석
도시텃밭 특성 분석	현장조사, 심층인터뷰	·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심층인터뷰 를 통해 나타나는 사실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해석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룬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도시공공성에 관한 연구, 도시텃밭에 관한 연구 등을 선행연구로 검토하였다.

2장은 ‘이론적 고찰’로 연구를 위한 개념들을 정립하고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을 정의하였다. 도시농업을 고찰하고 도시텃밭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도시공공성을 고찰하고 도시텃밭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였다. 연구자의 시각과 관점을 3장의 분석틀로 도출하였다.

3장은 ‘분석의 틀과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이다. 이론 고찰을 통해 분석의 틀을 만들고 세부 분석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를 통해 조사항목을 도출하여 4장 특성연구를 위한 예비작업을 하였다. 이 장에는 대상지가 된 도시텃밭의 기본적인 현황을 정리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을 서술하였다.

4장은 ‘도시텃밭의 특성 분석’으로 물리적인 측면과 비물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특성을 분석하였다. 물리적인 부분은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지역성으로 나누었고 비물리적인 측면은 주체성의 측면, 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의 측면 그리고 협력적인 과정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였다.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한계와 향후과제를 서술하였다. 이상의 연구의 구성은 〈그림1-2〉 연구 흐름도의 과정과 같다.

연구의 세부 목적 설정	
1. 도시농업과 도시공공성에 관한 고찰 2. 도시공공성의 관점 구축 및 도시텃밭 현황 파악 3. 도시공공성과 관련한 도시텃밭의 특성 분석	

연구과정	연구의 내용	본문구성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선행연구	■ 도시텃밭의 양적 증가 ■ 도시텃밭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 제기 - 도시텃밭의 현황과 현안 - 도시공공성 연구의 배경 - 도시농업과 도시공공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착안점	1장
▼		
이론적 고찰	■ 도시농업의 이해 및 도시텃밭 공간에 관한 관점 ■ 도시공공성의 이해 - 도시농업 개념과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 도시공공성의 개념과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2장
▼		
분석의 틀 설정과 텃밭현황	■ 조사항목과 분석의 틀 설정 ■ 대상지 선정과 현황조사 - 분석의 방향 모색 및 분석의 틀 설정 - 연구 대상지 개요와 기본 현황조사	3장
▼		
연구의 분석	■ 도시텃밭의 특성 분석 -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로 구분 - 현장조사, 경작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 특성 분석과 분석의 해석	4장
▼		
결론	■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활용방안	5장

〈그림 1-2〉 연구 흐름도

제3절 선행연구검토

1. 도시농업의 연구

도시농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에서 발견되는 농업의 형태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도시는 확장하고 있었고 농촌은 쇠퇴하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농업활동은 많지 않았고 여가, 취미, 상업의 목적을 가진 모든 형태가 도시농업의 대상이 되었다. 도시 속의 텃밭보다는 도심지에서 떨어진 교외지역의 주말농장의 형태가 다수를 이뤘다. 초기에는 농촌관광과 지역관광의 맥락에서 거론되기도 하였다.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도시농업은 보다 전문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도시에 대비되는 농업이라는 학문적 특수성이 대두된다. 해방 후 국토발전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 50년이 흘렀고 도시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세계적인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목표를 갖기 시작한 즈음이다.

도시농업의 연구는 장동헌·소순열(2005)의 계획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농업, 유병규(2000)의 농업의 복합 산업화, 김종덕(2002)의 대안농업 운동 등 산업적 측면의 농업에 초점을 맞춘 구체성을 띤 형태로 연구된다. 김수봉 외(2002)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는 도시농업이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000년대의 도시농업 연구는 학문적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도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고찰하는 연구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도시농업의 개념이 이 시기에 변화했다. 구체적인 도시농업의 현상과 실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장동헌·소순열(2005)은 도시농업의 경영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소현정(2008)은 도시농업 네트워크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거론한다. 권광식(2005)은 도시생태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000년대 중반에는 농업분야와 환경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농업이외의 분야에서도 도시농업

4) 류선무, 농촌공원의 자원별 관광농업 개발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57-68.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도시농업의 연구는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1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 시기에 국책기관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농촌진흥청(2011), 도시농업기술원(2011),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등 국가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외사례연구를 통한 지역특성화 연구, 현안 과제와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⁵⁾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000년대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는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되고 있다. 이들 연구를 큰 범주로 분류해보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의 도시농업 그리고 도시농업공원 등 특정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이 주제들은 다소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중점이 되는 목적은 차이를 보인다.

도시농업활성화 측면에서의 연구는 1990년대부터 연구해온 농업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도시공간과 관련한 도시계획, 조경학 등 인접학문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이는 도시농업을 위해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일부 연구가 도시공간과 관련한 학문으로 확산했음을 보여준다. 강기남 외(2007)는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논의했고, 김진환(2010)은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최재훈(2005)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의 도시텃밭 활용가능성, 장동현(2007)은 전주시의 사례에서 영농의 실태와 존속가능성을 고찰한다. 장준호 외2인(2010)은 도시농업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고 임미정(2011)은 참여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동체와의 관련성을 모색한다.

최근에는 공동체와 관련한 연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농업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김미향(2011)은 텃밭으로 커뮤니티가든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연구를 하였다. 박태호(2012)는 텃밭의 프로그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고 노희영(2012)은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체

5) 손슬기,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6.

활성화의 영향요인을 찾아내었다. 이차희(2012)는 관리운영방식이 이용자의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농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해 박혜숙(2012)이 고찰하였다. 박원제 외 3인(2012)은 공무원과 도시농업인의 인식을 비교해 정책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도시농업이 각광을 받으며 도시공간으로 양적인 확장을 하면서 도시공공성의 관점으로도 연구되었다. 임정언(2009)은 공공적인 도시텃밭의 이용을 위해 도시농업공원 설계하였고, 윤희정·조미경(2012)은 도시공원의 관점에서 도시농업공원의 발전가능성을 연구했다. 허주녕·김태곤(2012)은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선호와 가치평가를 통해 공공적인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한편 손슬기(2013)는 이러한 도시농업의 변화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긍정적인 가치에 대해 성찰과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구의 관점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몇몇 연구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지닌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 보다 더 근원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했다.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를 관점에 따라 구분하면 <표2-4>와 같다.

〈표 1-4〉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관점	연구자	연구 내용
도시농업 활성화	강기남 외 3인(2007)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방안
	소현정(2008)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
	장동현(2009)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김진환(2010)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생활 농업추진실태에 관한 연구
	장준호,김은옥, 조지은(2010)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효선(2011)	녹지확충을 위한 도시농업의 조정적 전개방안
	박태호(2012)	도시텃밭프로그램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박혜숙(201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이병준(201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지 확보방안 연구
	이인환 외 4인(2012)	도시민의 도시농업 경험이 농촌체험관광에 미치는 영향
	박원제 외 3인(2012)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 비교 평가
	임광석(201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형수직농장 계획에 관한 연구
지역 공동체 활성화	권광식(2005)	도시생태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최재순(2009)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의 도시텃밭 활용가능성
	김미향(201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 내 공지를 활용하여 커뮤니티가든을 조성
	임미정(2011)	참여자 인식조사를 통한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여부를 측정
	노희영(2012)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차희(2012)	도시농업의 관리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른 이용자의 공동체의식 측정
	박은지(2012)	옥외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커뮤니티가든을 사회적 자본의 관점으로 연구
도시농업 공공적 활용	임정언(2009)	동탄 도시농업공원 설계
	윤희정, 조미경(2012)	도시공원 진화상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도시농업공원의 발전가능성
	허주녕, 김태곤(2012)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선호와 가치평가
	손슬기(2013)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2. 도시공공성의 연구

도시공공성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에 대두되었고 주로 건축과 도시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초기 연구는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연구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석(1994)은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 방안의 연구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모두에 대한, 함께에 대한, 열린에 대한 태도로 규정하였다. 임상진(1997)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공간을 공공성이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김진욱(2003)은 개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건물과 도시와의 관계가 공공성 증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윤희(2005)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공공성은 사람이 공간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측면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이창훈(2006)은 공과 사로 나누어지는 물리적인 구분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공성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⁶⁾ 신승수(2010)는 다양한 사용자들 사이의 공통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담론과 행위의 공간을 공공성의 특성으로 보았다.

공공성이 거론되는 도시공간은 크게 개별 건축물과 도시외부 공간, 건축물의 공개공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공개공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공개공지는 사유공간이면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대상은 도시의 공간 중 건축물의 외부공간으로 한정하였다. 도시 내 외부 공간의 공공성 연구는 특수한 장소성을 가진 공간에 대한 연구와 개발사업에서 거론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뉜다.

도시개발 차원에서 연구에는 김도형(1998)의 도심재개발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신중진(2002)의 대규모 복합용도개발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송영석(2004)의 일반상업지역의 개발에서 공공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장석준(2005) 상업지역의 개발과 공공성 원칙에 대한 연구, 정우인(2006)의 도심지 획지 개발 계획시 공공용지 공공성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특정 장소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2008), p.37.

와 관련한 연구에는 이상호(2002)의 복합용도 건물 내부 광장의 연구, 이종욱(2003)의 이태원을 대상으로 도시 공공성 확보를 논의한 연구와 이윤희(2005)의 광화문을 대상으로 가로의 공공성을 분석하고 확보방안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 이윤희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을 떠나 가로에서 경험하는 인지에 대한 고찰로 공공성을 분석하였다.⁷⁾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공성에 관한 연구는 건축물과 그에 관련한 도시공간에 대해 연구된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후 공공성의 논의는 도시분야의 새로운 담론과 함께 차츰 확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차원을 벗어나 과정의 차원과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⁸⁾ 주민참여와 전문가의 역할 변화를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이는 사용자와 참여자의 행위에 기초하여 공공성을 연구하던 것이 도시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도입된 주민참여의 이론은 2000년대에 이르러 농촌지역개발에 적용이 되었고 2000년 중반 도시개발 시스템에 적용되었다.⁹⁾ 이 시기 주민참여이론은 도시개발과 마을만들기 등의 전략을 통해 도시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시행에 따른 민원의 공람, 공청회 등의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설계 및 계획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의 주체인 주민의 의식성향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 도시개발측면에서의 주민참여 등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¹⁰⁾

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2008), p.44.

8) 박진수, 김기수.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 14(2), 2013, p.41.

9) 이정원,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p.23-24.

10) 정재훈, 주민조직 리더십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9.

이들 연구를 통해 도시공공성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협력적 관계, 지역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미옥(2010)은 도시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역, 주체, 절차, 이유제시의 측면으로 공공성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박진수·김기수(2013)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를 비판하면서 사회·문화·환경적 가치회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제도는 수평적 의사결정,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 공익을 위한 보편적 실현, 공공의 능동적 역할 및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표 1-5〉 도시공공성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공공성 개념 측면	정석(1994)	건축외부 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 방안
	한상운(2000)	도심형 사무소 건축의 저층부 공간분석에 따른 공공접근성과 개방감에 관한 연구
	최희원(2000)	도시공공성 측면에서 설계자의 의식에 근거한 공개공지 평가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장은영(2002)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임상진(1997)	건축적 공공성의 구현에 관한 연구로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장소
	서정숙(2001)	건축외부공간의 공공공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를 체험하는 장소로 공공성을 정의
도시 외부 공간 측면	이종욱(2003)	Kevin Lynch 이론을 통한 한국 도시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로 도시 공공성의 현황파악과 공공성 확보 방안 제시
	이윤희(2005)	현대도시에서 공공성을 반영하는 인지지도와 이를 토대로 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아닌 경험을 통한 공공성을 반영하는 인지지도에 대한 고찰
	정우인(2006)	도심지 획지 공동개발 계획에서 공공용지 공공성 증진 방안 연구
	이훈길(2003)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윤종국(2003)	도시건축 경관의 구성요소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기원(2004)	지역문화시설의 건축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참여 및 공동체 측면	조위래(2012)	주민참여형 소공원에서의 장소애착이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윤환 · 한용석(2010)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해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 행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
	김남두(2006)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 사회의 일반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해서 영향을 끼치고 시행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
	김혜민(2006)	어떤 사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주민이 해당 사업의 발의, 계획의 수립,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하성규 외 2인(1995)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공동의 책임을 갖고 가능한 한 공동으로 실행하자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도시계획, 도시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2008), p.38.

3. 연구의 착안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도시텃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도시농업 연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고, 어떤 공간이 적당한 지에 대한 물음은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 중이다. 도시의 공공 공간과 공원녹지 등에 텃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¹¹⁾ 우리 분야에서는 보다 도시공간의 관점에서 그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도시농업 그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도 도시 내의 한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그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도시농업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관련된 주체들을 분석하기도 했다. 주체들의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거버넌스 이론을 도시농업에 적용하기도 했다. 도시농업이 실시되는 공간은 경우에 따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영향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현장의 내용을 반영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 활성화 그리고 활용현황과 활용가치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우리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공공성의 학문에 비추어 도시농업을 바라보고자 한다. 물리적인 요소와 함께 비물리적인 요소가 연구대상이다.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등의 이론은 도시, 조경분야에서 그 가치가 이미 인정되었고 도시의 공공성 확보와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도시농업이 발생하는 공간들은 도시공공성 연구의 흐름에 편승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내용은 많지 않다.

도시농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이때 도시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를 위한 하나의 측면이 공공성의 관점이다. 도시텃밭은 도시공간의 어떤 장소보다 주체가

11) 강기남 외 3인.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방안,” 『충북대학교건설기술연구소』, 26(1), 2007, p.173.

중요한 공간이다. 이용자의 참여빈도가 일반적인 도시장소보다 많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주체의 일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도시텃밭은 주민참여의 공공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도시텃밭의 공간은 비교적 다른 도시 공간에 비해 근린 지역에 분포한다. 참여자가 잦은 빈도로 방문하기 때문에 주거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마련이다. 또한 행정적으로 각 자치시도별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네의 범위에서 일어난다. 이는 도시텃밭의 장소가 그 지역 사람들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도시 내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도시텃밭은 그 효용성이 증명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역공동체 개념은 도시텃밭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부분이다. 도시텃밭은 참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성상 참여자가 반드시 제한되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는 공공성을 다루는 우리분야의 특성상 약간의 쟁점을 낳는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도시농업공원이나 공공정원, 텃밭공원 등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이질적인 결합으로 보인다. 어떤 모습인지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장소가 공공적인 특성을 띤다는 것이다. 도시텃밭에서 공공성에 관한 문제는 현실적이다. 공공성의 이론은 상당히 추상적이며 방대하지만 우리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공성의 개념은 제한적이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현대도시의 공공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이론은 도시텃밭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농업의 이해와 도시텃밭에 대한 관점

1. 도시농업의 개념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시작되었지만 그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학술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각 지자체는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 행해지는 농업활동이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도시농업, 도시텃밭, 도시농장, 시민농원 등 다양한 언어로 불리고 있다. 이 중 가장 통용되는 말은 도시농업이다.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에 가장 널리 쓰이는 유엔개발계획보고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작물과 가축을 기르기 위해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 내에서 땅과 물을 이용한 집약적 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천연자원과 도시폐기물을 활용, 식량과 다른 부산물을 생산하고, 처리하며 사고파는 행위를 도시농업이라 한다.¹²⁾ 국내에서는 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정의한다.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작활동을 모두 도시농업의 범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그 공간들이 도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을 경우,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역시도 도시농업의 범주로 이해한다.¹³⁾

이영민(1997), 이창우(1997) 등은 도시농업을 텃밭으로 일구어진 형태로 이해한다. 초기에는 도시에서 행해지는 농사일을 도시농업으로 바라보았다. 그 후 도시의 자투리 공간에 사람들이 가꾼 녹색의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도시농업은 경작활동 혹은 생산활동을 일컫는 말이 된다. 유병규(2000), 김종덕(2002)은 아파트와 생활공간, 도시의 유휴공간에서 볼 수 있는 경작활동을 도시농업의 범

12) Smit, J., A. Ratta, and J. Nasr. Urban Agriculture: Food, Jobs, and Sustainable Cities (New York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61), pp.9, 12.

13) 이병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지 확보방안 연구,” 『도시 행정 학보』, 25(4), 2012, p.93.

주에 포함시켰다. 한편 도시농업을 식량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책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도시의 생산활동이 매개가 되어 식량문제와 환경문
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시농업이라는 의견이다.

임효선(2011)은 도심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도시의 녹
지공간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활동을 도시농업으로 정의한
다. 이윤정(2011)과 김수봉 외(2002)는 도시농업의 범주에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을 포함시킨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시농업의 개념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으로 정의된
다. 2012년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¹⁴⁾

도시농업의 개념은 다양하고 포괄적인데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첫째는 도시민이 도시 내에서 취미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
규모 농업, 둘째는 도시민과 전업농에 의해 도시 및 도시 근교에서 주로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셋째는 도시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향상, 친환경
농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민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
다.¹⁵⁾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는 비슷한 대상과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정의되는 도시농업은 그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어 다양한 언어
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도시농업이 도시민의 참여주체로 관계를 맺는다는 면
이다. 도시문제로 거론되는 폐쇄된 공동체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시농업은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도시농업은 식량공급과 함께 도시환경문제를 해결
하고 와해된 도시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민은
생산된 것을 단순히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활동과 생산활동의 주체로 도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주체는 도시민이다. 도시에서의 농사는 먹고, 보고, 교류함으로써

1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15) 김진환.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생활농업 추진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
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 2010, pp. 98-103.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러한 생산적 여가활동은 텃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된다. 또한 도시농업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농업으로서 도시 내 주거지 주변 도시텃밭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을 통한 도시환경 회복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한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농업체험을 한다는 점과 스스로 농산물을 길러내 안전한 먹거리를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농업에 비해 큰 이점을 갖는다.¹⁶⁾

2000년 이전의 도시농업의 개념은 산업적 성격의 농업과 생활농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었고¹⁷⁾, 2000년 이후부터는 대부분 도시민의 입장에서 텃밭에서의 생활농업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영민(1997)은 일찍부터 도시농업을 텃밭 형태로 보고, 산업적 생산으로의 농업이 아닌 생활농업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김종덕(2002)은 아파트 단지의 빈 공간을 포함해서 베란다를 비롯한 실내 및 옥상 등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또한 도시농업을 전업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행하는 농업활동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이창우(2005)는 도시농업을 도시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으로 규정하고 산업농업과 생활농업 외에 토지소유에 따라 무단 점유형 농업을 추가하였는데, 무단점유형농업이란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도시 내 공휴지에서 주변 경관을 해치던 농업형태로 도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¹⁸⁾

생산적 측면에서 보면, 최승(1988)은 도시 내에 존재하는 공한지 등의 유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와 축산 등 1차 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 및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보았고, 유병규(2000)는 도시화과정에서 농업의 복합 산업화라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 농업의 영역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장동현 외(2006)는 농업생산과 더불어 계획

16) David Mason, Ian Knowd, "The emergence of urban agriculture: Sydney,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Agricultural Sustainability, 8(1), 2010, p.65.

17) 박태호, 도시텃밭의 운영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23.

18) 장동현.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산업경제연구』, 22(2), 2009, p.981.

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농업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수봉 외(2002)는 도시농업을 도시환경과 결부하여 도시 내의 유휴지 및 공휴지를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즉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살려서 도시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임효선(2011)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텃밭을 녹지로 이해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도시녹지 증가로 이어지므로 도시환경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시농업을 기존의 녹지 확충 방법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농업의 조정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윤정(2011)은 도시농업이 농산물의 근거리 공급으로 작물 이동거리를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2. 도시농업의 유형과 특성

(1) 도시농업의 유형

우리 도시농업은 통상적으로 도시형, 근교형, 체재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 내 주거지 근처 위치한 도시텃밭과 근교에 위치한 주말농장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별장을 갖춘 체재형으로 나뉜다.¹⁹⁾ 도시형은 도시의 다양한 인프라 시설과 함께 농업공간이 공존하는 곳이다. 근교형은 도시형이 나타나기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곳으로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다. 체재형의 경우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을 모델로 도심에서 가까운 1~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이다. 체재형은 단순히 농사활동만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체험을 통해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도시농업의 유형은 형태, 목적, 기능, 규모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자텃밭, 베란다텃밭, 옥상텃밭, 주말농장, 수직농장, 자투리텃밭, 학교 텃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도시에서 이루어

19) 박태호, 앞에 든 책, p.32.

지고 있는 농업의 형태를 나열한 것으로 운영하는 단체, 참여자 등에 따라 명칭은 달라질 수 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도시농업의 유형 등』에 정의된 유형은 <표 2-1>과 같다. 이는 활용 방법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건축물, 근린생활권, 고층건물, 농장과 공원, 학교 등의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의 유형이다.

<표 2-1> 도시농업의 유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	정의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농장형· 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도시농업의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각각의 유형이 나타난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유희공간에서 생겨났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최초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시농업의 양상이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더 많은 도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토지활용에 의한 구분이 아닌 실제 도시농업이 발생하는 사례에 의한 구분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사용하는 공간에 의해 분류한 것이다. 자투리 공간, 주택의 마당, 건축물의 옥상, 플랜터와 상자를 이용한 공간, 공원, 도시 외곽의 농원, 건축물 내부의 공간 등으로 나뉜다.

〈표 2-2〉 도시농업의 공간적 유형분류

구분	내용
자투리텃밭	· 건축물이 아닌 도시의 자투리 공간에 생기는 텃밭으로 초기에는 개인 및 지역민에 의해 무단 점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행정에서 도시농업 실천공간의 확보로 육성하고 있음.
옥상텃밭	· 건축물의 옥상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한 것으로 인공지반으로 화단을 꾸미거나 상자 등을 이용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도시농업 실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
마당텃밭	· 주택의 마당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한 것으로 개인이 경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원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정원박람회와 도시농업박람회 등의 효과로 주택에서 텃밭을 경작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실내텃밭	· 건축물 실내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텃밭으로 소규모로 설치되고 실내정원의 형태를 띠고 있음. 개인 및 사업체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
학교텃밭	· 학교의 빈 공터를 이용하여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텃밭으로 학생들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가 많음. 행정에서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심제고 등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주말농장	· 건축물을 이용한 텃밭과 소규모 공간을 이용한 텃밭에 비해 대규모로 조성되는 텃밭으로 초기에는 도시근교에 조성되는 경우 많았으나 최근에는 도시 안에서 행정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 ·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도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과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농장형 텃밭으로 조성되고 있음.
텃밭농원 · 농업공원	· 도시 내에 농부 및 다수의 도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모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음. · 텃밭뿐만 아니라 농부학교 운영, 도시농업네트워크 형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는 마을 공동체형 텃밭으로 행정에서 도시농업 실천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음.

자료 : 2013 대안농정 대토론회 자료집, 2013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자료집

(2) 도시농업의 특성

① 도시농업의 효과

도시농업은 도시민, 민간단체, 정부 등 행위주체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이 각각 다르다. 도시민은 안전한 먹을거리와 여가·취미활동의 장으로 보고 민간단체는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여 친환경적 농업을 지향하거나 도시농업의 활동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며, 정부는 불법경작지의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 어린이·청소년 교육 등 복지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농업은 위의 세 주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직접적 효과로는 안전하고 건전한 식량자급률이 향상되고, 농업활동으로 인한 개인 신체적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을 다루는 일을 통하여 생명에 존엄성을 알게 되며 즐거움과 보람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 치유가 된다. 고령화 문제로 대두된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을 통하여 자아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농업이란 1차적 생산 활동은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하여 대기와 물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며, 일부러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도시 내 녹지가 만들어져 도시 건조화 완화와 도시 내 열섬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1차적 효과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단절된 생태계 순환을 회복하여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2차적 효과가 있다.²⁰⁾

도시농업의 효과에 대해 오대민, 최영애(2006)는 경제성 제고, 환경보전, 사회문화적 기능 증진, 경관 및 녹지제공, 공동체형성의 기능을 발견했다. 나영은은(2010)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공동체형성, 체험교육, 휴양·복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김진환(2010)은 사회적 효과로 공동체의 회복, 경제적 효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 생태적 효과로 단절된 생태계 순환의 회복이 있음을 거론한다.²¹⁾

② 도시농업의 전개양상

도시농업이 전개되면서 그 공간은 시기별, 주체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경작할 땅을 제공할 경우는 규모가 비교적 컸고, 공동체가 형

20) 박혜숙,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20.

21) 노희영, 도시농업 운영주체별 조성과 운영방식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12.

성되면서 텃밭을 일군 경우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았다. 초기에는 도시 유흥지, 자투리 공간, 불법정작지 등에서 도시농업이 발생하면서 도시공간으로 보기도 어려운 공간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의 지자체가 공영도시농업농장과 도시농업공원 등의 조성·계획하면서 도시 내에 도시농업 공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도시농업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고 도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다.

현재 도시농업의 도시텃밭은 도시 학문의 다양한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생산경관으로서의 기능, 커뮤니티 형성, 공동체 회복, 커뮤니티가든, 공공 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도 도시농업은 중요한 논의를 지니게 되었다.

③ 도시농업과 네트워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 농업인, 도시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있고 그런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은 도시 유흥지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학교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고유의 용도와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시민이나 다양한 녹지 주체에 의한 계획의 공유와 보전, 조성 및 운영관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대중적인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과 민과 관이 밀접하게 연대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지닌 전문가가 필요하다.

각각의 주체들은 책임이 요구된다. 전문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수확하여 제공하고 농업관련 민간단체는 도시민과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농업 지역의 환경향상이나 농업을 통한자연과의 교류 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도시민은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요구를 도시농업 관리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도시민의 농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개인은 농업을 통해 도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²²⁾

정부는 도시민,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등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도시농업이 도시공간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지원센터 혹은 기관을 설립하여 도시농업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특히 도시농업의 미래 수요자 측면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각 공간의 주체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 주체의 하나인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는 도시농업이 사회, 경제, 문화, 생태,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²³⁾

(3)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2012년 5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이 법에서 정한 도시농업의 유형은 다음의 다섯가지다.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도심형 도시농업,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다.

주택활용형과 도심형 도시농업은 비교적 건물과 인접한 토지를 활용하는 유형이다. 근린생활권은 유흥지를 활용하는 방식이고 학교교육형은 학교의 토지와 건축물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유형은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이다. 이 중 공원형 도시농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유형으로 법제화 한 것이다. 도시공원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을 하는 유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 5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도시농업 활동과 관련한 텃밭 등의 시설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 공원 내에 텃밭을 설치할 수 없었다. 제도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해 도시공원 내의 경작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개정

22) 장동현, 앞에 든 책, p.991.

23) 박혜숙, 앞에 든 책, p.30.

된 것이다. 경작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도시농업의 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원시설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 주제공원의 항목으로 도시농업공원이 추가되었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명시됐다.

3. 도시텃밭의 이론적 쟁점

국외에서는 공동체 텃밭의 기능과 혜택에 대해 도시 및 조경학자 이외에도 환경심리학자, 역사학자, 원예학자, 지리학자 등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리학자 카렌 쉬멜츠코프(1995)는 도시 유흥지 및 개발에서 방치된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다양한 도시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텃밭을 사회적응과 문화적 전통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간주한다. 트로이 글로버(2003)는 사회적 자본의 생성, 민주적 가치의 실현으로 공동체 텃밭의 사회적인의를 분석한다. 조경가 마크프란시스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공동체 텃밭의 역할을 언급한다.²⁴⁾

지역의 주민과 이용자, 공무원 등이 다소 차이는 보이지만 도시텃밭에 공공적 가치가 있음을 밝혀낸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식량생산과 식량안전, 시스템 차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다.

국외에서는 국내에 앞서 이미 오래전에 도시텃밭의 많은 이점을 발견했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이 발견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기대와 욕구가 실현되는 경험을 하지만 이런 경험이 비참여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공동체텃밭은 공원과 같은 전통적이 공공공간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많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일반 공간과의 다

24) Jeffrey Hou, Julie Johnson, 이강오 (역),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 (파주: 조경, 2013), p.19.

를을 언급한다.²⁵⁾ 결국 공동체텃밭은 공공과 개인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 모호한 위상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도시농업의 육성과 함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원 내 텃밭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다른 언어로는 공공텃밭, 공공정원, 텃밭공원 등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해 주말농장이 이미 도시 외곽에 존재하는데 도시 안에도 필요한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도시텃밭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와 도시텃밭이 갖는 사회적 파급성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텃밭의 공공성에 관해서는 특정 소수만을 위한 공원은 없다는 것과 경작활동이 다수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시농업공원, 공공정원 등은 특정 소수를 위한 공간 점유를 용인한 것인가, 기존의 도시공원의 성격이 확장한 것인가라는 물음이 존재한다. 이는 그에 앞서 도시농업 자체에 대한 모호함과 명확성 부족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경분야와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부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실천의 영역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학문적 체계성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안명준은 정원과 도시농업의 연결성을 짚어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도시농사와 조경의 교집합은 공공정원의 성격을 갖는 형태일 것이라 본다. 배정환은 프로슈밍 경관에서 생산 경관이 재조명되고 있는 현상은 곧 정원 문화의 회복인 것으로 해석한다. 김연금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한 정원본능이 개인을 넘어서 공공 공간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정원 본능이 도시로 스며드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어떻게 도시적인 가치로 환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네 쓰레기장 텃밭, 근린공원 녹지공간 내 텃밭, 노인 복지관 자투리 공간 텃밭 등을 언급하며 공간의 공공성의 쟁점을 짚어낸다.

윤상준은 영국 얼롯먼트의 사례를 들어 도시텃밭은 자기만의 정원을 갖지 못

25) 같은 책, pp.42-44.

한 사람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땅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도시에 텃밭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원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병연은 도시농업이 초기부터 대량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하면 이것은 빈 공터만 만들 것이라 주의를 환기시킨다. 한국의 도시농업이 도시 유휴지에 임시로 활용되는 형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활용방법과 이용가치 역시도 일시적으로만 작동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함성호는 도시농업이 도시공공성의 영역으로 나가서 공원의 구조까지 파고들어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녹지를 잠식할 수도 있음을 거론한다. 이용자와 참여자들의 커뮤니티도 제한적이길 희망한다. 송정섭은 도시농업공원과 도시텃밭의 공간들이 단순히 도시농업의 영역을 키우고 공간만을 늘리기 위한 접근이 아님을 강조한다. 도시농업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도시가 건강한 것이고 녹색 공간이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미는 도시농업공간을 친근하고 다시 오고 싶은 공간, 생산하며 즐길 수 있는 복합 기능의 공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양주는 관련 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 중앙정부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시 공원 내에서 도시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육성해야 함을 주장한다. 도시농업의 공동체적 성격의 장점이 도시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판단하며 시도별로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장한다.²⁶⁾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도시농업을 도시텃밭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도시농업의 행위를 기준으로 현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도시농업이 발생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현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는 장소에 관련한 물리적인 것과 행위에 관련한 비물리적인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도시텃밭으로 이해할 때는 도시 공공 공간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

현재 도시농업의 쟁점 중 하나는 공공성의 측면에 있다. 그런데 도시농업과 공공성 모두 포괄적인 의미로 모호한 위상을 가진 용어이다. 반면 도시텃밭이

26) 도시농업특집대담, 『환경과 조경』 (2011년 7월), pp.10-20.

라는 용어는 도시농업을 이 분야의 전체적인 양상과 행위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을 지양하고 장소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창출의 관점에서는 장소가 수단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도시텃밭이라는 물리적인 도시 공공 공간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장소 중심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

도시텃밭은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한 종류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 오픈스페이스는 넓은 의미에서 도시지역과 도시주변에서 건물이 차지하지 않는 모든 토지와 공간 등 환경을 포함하는 공간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사유대지 내에 있는 공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말한다.²⁷⁾ 도시텃밭이 도시 공공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시농업의 연구에서 장소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상향식 개발로 지역 주민의 욕구와 참여에 바탕을 둔 지역 개발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장소와 주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도시텃밭은 도시 공공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도시텃밭은 다양한 이슈들을 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텃밭의 주요쟁점을 세 가지로 압축하였다. 첫 번째는 도시텃밭이 주민참여의 공간으로 참여자에 의해 공간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도시텃밭이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도시텃밭이 도시의 복합적 공공장소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텃밭은 단순한 녹지공간이나 경작활동을 위한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환경적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 도시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이론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이승우, 건축법에 의해 조성된 공개공지의 활용가능성 검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0.

제2절 도시공공성의 이해

1. 도시공공성의 개념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성의 일반적 개념과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의 현대적 개념이 포함된 용어이다. 도시공공성은 공공성의 개념을 도시공간의 학문에 연관시켜 도시공간의 연구에 필요한 개념으로 재정의 한 것을 의미한다.

(1) 공공성의 일반적 개념

공공성은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학문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철학, 사회학, 정치학, 도시학, 예술학, 경제학 등에서 공공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고 지속적으로 논의의 영역에 있다. 공공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정부와 관련한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차츰 사회분야에서도 연구하면서 도시에서 실천적인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²⁸⁾ 공공성의 개념은 각 분야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철학과 정치학의 개념을 따르고 정치학에 더 근접한 의미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는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공교육, 공공사업, 공공기관과 같은 분류에 속한다. 둘째는 공통이라는 의미이다. 특정 누군가에게 소속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관계한 것이라는 뜻이다. 공통의 이익, 공통의 규범, 공통의 관심사 등을 가리킨다. 공공복지, 공익 등이 같은 분류에 속한다. 셋째는 열려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특성을 말한다. 공원, 공중, 공공연합 등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²⁹⁾

학문에 종종 등장하는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사이토 준이치는 다음과 같은

28) 이상봉,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 - 지역적 공공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1), 2011, p.24.

29) Junichi Saito,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민주적 공공성』 (서울: 이음, 2009), p.19.

해석을 놓는다. 단수로 쓰이는 ‘공공(public)’은 ‘공공적 공간’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공공적 공간’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짜인 담론의 공간이다. 복수로 쓰이는 ‘공공(publics)’은 ‘공공권’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공공권’은 일정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논의의 공간을 가리킨다.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도 조금씩 다르다. 이처럼 공공성은 정치학에서 학자에 따라, 해석에 따라 개념 정의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³⁰⁾ 공공성론으로 널리 알려진 아렌트와 하버마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칸트의 정의 또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³¹⁾

도시학의 범주에 있는 본 연구에서 정치학에서 다루는 공공성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의도는 없다. 큰 틀에서 공공성의 인문학적인 연구가 도시학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이해에 목적이 있다. 공공성의 철학적 담론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공성의 주체였던 과거와 달리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하버마스는 ‘시민적 공공성’으로 정의했다. 국가적 공공성에 대비되는 이 개념은 자유로운 시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합의가 형성되는 장이 만들어 진 것을 의미했다.³²⁾

한편 아렌트는 공공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활동하는 곳으로 ‘드러남의 공간(space of appearance)’으로 설명한다. 공간이 공공적이기 위해서는 광장과 공원처럼 물리적인 공공장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간결하고 확실한 본질적인 개념이었다.³³⁾

정치학적으로는 ‘시민적 공공성’의 시민에 특정 계급만이 포함되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주체가 국가에서 시민으로 옮겨가는 양상은 확실한 변화로 보인다. 이는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합의 형성의 공간이 필요함을 논증하는 것이다.

30) 같은 책, p.59.

31) Yuichi Aiko. “공공권에서의 ‘언어라는 장벽’ 칸트의 문제제기,” 『정치사상연구』, 17(1), 2011, pp.133-159.

32) Junichi Saito, 앞에 든 책, p50.

33) 이상봉, 앞에 든 책, p7.

(2) 공공성의 현대적 개념

공공성의 일반적 개념에는 공공성 개념의 변화를 아우르는 과거와 현재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다 현대적인 개념은 2000년대부터 공공성 연구에서 많이 다룬 개념을 포함하였다.

세계화와 도시화와 같은 사회의 변화는 개인주의와 핵가족화와 같은 인간소외현상을 낳았다. 아렌트는 이러한 현상과 함께 공공성이 위축되면서 사적인 개별성 또한 위축되었음을 말하며 또한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적어졌다고 지적한다. 현대사회는 소외와 함께 도시공간의 단절이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³⁴⁾

① 공정 측면의 공공성

이영주(2004)는 공공성을 다섯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국가 혹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공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공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갖는다. 두 번째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공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세 번째는 정부와 국가만이 아닌 사회 활동 전반에 적용 가능한 경우로 공식성의 성격을 지닌다. 네 번째는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공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섯 번째는 접근가능성과 공유성의 의미를 갖는다.³⁵⁾

이와 같은 공적측면의 공공성은 대체로 행위의 주체에 관계된 것으로 정부와 시장을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을 짓는 행정학과 관련 깊은 개념이다. 여기서 공적인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즉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일체로 규정되며 이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것에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공권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공권력은 단순히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34) 김보라, 공공장소로서의 길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 이론 고찰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37-42.

35) 이영주, 방송 공공성의 구조변동 연구 : 방송생태의 구조역학 분석과 디지털시대 방송철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76-77.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공적’의 의미는 공과 사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의미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³⁶⁾

② 공익 측면의 공공성

소영진(2003)은 공공성의 개념을 전체와 다수에 관한 일, 권위, 정부, 전유불가능성, 이타성으로 정리하였다. 전체의 공동, 공통을 위한 일로 해석하였다. 전체 또는 다수의 관한 일은 공공영역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부분과 정부부분 모두를 포괄한다. 권위는 민간조직을 포함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비전유성과 공익을 추구하는 이타성으로 개념을 정리하였다.³⁷⁾

다수의 일반사람들에게 공통·보편적으로 관련되는 행위로 이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련된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우선 행위의 주체로 보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정부와 국가만의 전제가 아닌 사회전반에 적용되는 경우의 개념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공통’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행위의 목적에 관련된 개념으로 보면 공공성은 다수의 일반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즉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공공성을 갖는다고 개념 짓는다. 신광영(2000)은 공공성의 공익적 측면을 특정 집단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임의영(2003)은 공익 측면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지속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며 토론의 내용은 규범적이며 가치 추구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한다.³⁸⁾

③ 공정 측면의 공공성

임의영(2003)의 연구에서 공공성은 접근가능성과 공지성의 의미를 가지며 정

36) 염철호 외 2인,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20.

37) 소영진.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 9(1), 2003, pp.6-8.

38) 염철호 외 2인, 앞에 든 책, p.21.

보의 접근성도 이에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개방성과 공지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임의영은 공공성의 개념을 사회적으로는 공익, 정치적으로는 참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공공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는 긍정적인 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³⁹⁾ 그리고 소영진(2003)은 전유불가능성과 이타성의 개념을 통해 공공성을 정의한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접근이 용이한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재는 정부 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접근이 용이한 성질을 가진다. 공공성은 공공재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으로 논의되어 왔다.⁴⁰⁾

④ 공론 측면의 공공성

심광현(2007)은 공공연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일반사회에 두루 적용가능한 성질을 공공성으로 정의했다. 심광현은 현대사회의 공공성이 정치적으로는 공정, 경제적으로는 공익, 문화적으로는 공론을 띤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평등성과 공론적 자율성이 중요시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중에서도 공론적인 자율성이 현대적 공공성의 특성 중 하나인 것으로 보았다.⁴¹⁾ 공공성 개념에 문화적 관점으로 공론의 측면을 추가하고 있다.

39) 임의영. “공공성 ;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9(1), 2003, p.29.

40) 염철호 외 2인, 앞에 든 책, p.22.

41) 심광현, 공교육 재개념화와 교육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전국참교육실천보고대회 자료집, 2007, pp.107-113.

(3) 도시공공성의 개념

도시공공성은 ‘도시의 공공성’, ‘도시적 공공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여기서 도시는 도시를 다루는 학문적인 범주를 아우르는 용어로 본다. 대표적인 학문으로 건축과 도시, 조경, 공간을 다루는 학문에서 정의하는 공공성으로 볼 수 있다. 도시공간과 관련한 공공성으로 도시와 공간의 특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접학문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시공공성의 개념은 일반적인 공공성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인 구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공성의 일반적인 개념과 함께 최근에 변화한 현대적 개념의 공공성을 적용하였다. 물리적인 개념과 함께 사회적인 개념이 도시공공성의 개념을 형성한다.

건축, 도시, 조경분야에서의 공공성의 대표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석(1997)은 닫힌 건축이 아닌 모두를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정의하며 공개공지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영범(2003)은 사회적 언어로서 디자인을 통해 공간의 공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기용(2007)은 지역의 정체성과 주체의 회복을 통해 공공성을 설명하였다. 김상조(2007)는 도시계획에서의 공공성은 도시공간의 공익적 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으로 정의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을 위한 공공재로 간주하였다.⁴²⁾ 성종상(2008)은 경관이라는 태생적인 공공성, 대상의 공공성, 공유 지향적 태도 그리고 주체와 환경적 총체를 포함한 관계 지향으로 공공성을 정의했다.

도시공공성은 우리 분야의 연구에서 물리적인 측면과 비물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다. 도시 공간의 물리적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과 참여자들의 주체회복을 통한 사회적 공공성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도시공공성의 개념은 두 가지 차원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42) 엄철호 외 2인, 앞에 든 책, p.18.

2. 도시공공성의 특성

도시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도시문제와 환경문제 차원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전문가의 공공적 역할,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의로 확산하고 있다.

(1) 물리적 요소와 관련한 도시공공성

도시공공성은 물리적 공간 및 이용행태에 의해서 결정지어질 수 있다. 그동안 담장 허물기 및 사유공간을 공공에게 열어주는 것과 같은 개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의 논의가 있었다. 건축선 후퇴공간을 시민이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공공청사를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학교와 같은 시설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보도와 가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도시공공성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었다.

이효창(2008)은 공공성을 접근성, 쾌적성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정량화시켰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의 이용 측면과 공간의 구성 측면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을 나누어 평가하였다. 복합용도시설의 공간 유형별로 조사하였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요소를 찾아내었다.⁴³⁾

임희지(2004)는 지구단위계획의 항목으로 둘 수 있는 항목인 건축물의 높이, 1층의 외부공간, 건축물 실내공간, 건축선 후퇴와 같은 개발유도지침을 통해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유형에 따라 적정한 물리적 변화를 위한 지침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⁴⁴⁾

43) 이효창 외 2인. “지하도상가 광장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4(4), 2008, p.190.

44) 임희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유형별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서울: 서울연구원, 2004), pp.23-57.

(2) 비물리적 요소와 관련한 도시공공성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이 잡힌 태도로 도시가 추구하는 미래적 가치와 도시민의 다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이 도시공공성이다. 현대 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로 절차의 민주성 무시, 사회적 참여의 배제, 문화적 타당성의 무시, 자생적 도시경제의 말살 등이 거론되었다. 도시공공성은 공공성의 대상, 목적, 절차, 내용, 결과 그리고 주체가 갖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절차에 공정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⁴⁵⁾

도시공공성의 실현은 소수 전문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일궈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과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공성 확보가 최근의 주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담론과 참여가 도시 공공성의 주된 요소가 되었다.

① 참여와 전문가 역할 제고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행정주도형에서 탈피하여 협력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도시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적인 면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공간을 만들어갈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졌고 특히 공무원, 전문가, 주민 그룹의 연대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⁴⁶⁾

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구현하는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자율성과 창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심이 많은 주민과 지역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⁴⁷⁾

45) 이영범. “영국의 공공건축 - 영국 도시개발에서 제도와 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성 확보방안,” 『건축과 사회』, 6, 2006, p.33.

46) 엄철호 외 2인, 앞에 든 책, p.48.

47) 우신구. “공공디자인에서 건축의 역할 -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누가? :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에서 배운 교훈,” 『건축과 사회』, 11, 2008, p.32.

② 협력과 합의의 공공성

지방정부는 이제 중앙정부의 하향식 관계에서 상향적 또는 쌍방향적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던 지역의 문제들을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파트너십으로서 주민참여는 주민에게 참여권만 부여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주민이 계획과정에 참여함과 동시에 계획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지할 때 보다 효과적인 상향식 계획실천이 전개된다.⁴⁸⁾ 이러한 의사소통은 공공계획의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계획가, 정치가, 개발자 그리고 공중이 참여하여 다양한 대화와 논쟁과 협상을 거치는 실제적인 심의 과정이다. 이때의 계획가는 타당공론적 분석가가 아니라 공공적 담론과 사회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실행가로 이해된다.⁴⁹⁾

협력과 합의는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대사회에서 지역은 차별화된 특성에 따라 다원화되고 유동적인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은 현대의 공공성을 형성하는 실현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은 공통의 이해감정에 기초한 문화적 요소와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의 사회적 수요를 함께 담아내는 지역의 공공성이며 합의의 공공성이다.⁵⁰⁾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의 역할은 특정 주체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있다. 다양한 주체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삶의 질의 차원과 삶의 일상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도시공공성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8) 엄철호 외 2인, 앞에 든 책, p.32.

49) 문전호 외,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15, 2006, p.37.

50) 엄철호 외 2인, 앞에 든 책, p.50.

③ 과정의 공공성

유연적 계획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지역주민 주도적 계획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적 계획은 장기적이고 고정된 결과로서의 계획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의과정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유기적 계획은 유기체처럼 계속 변화하고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전략적이어야 하며 선순환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근대의 계획 패러다임은 전문가 집단이나 권력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일방적인 틀을 마련하고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제 계획은 하나의 거버넌스 활동이며, 지역의 문제와 관심사항을 협력해서 다루는 전략적 접근으로서 사회적 관계 및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결국 유연적 계획 패러다임에서 합리성은 계획가와 주민이 함께 상호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⁵¹⁾

지역의 새로운 변화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반면 지자체의 역량은 강화된다. 그러므로 국가 주도의 이념적인 관리시스템과 생활세계라는 사회의 이중구조 위에 세워진 중앙행정 관리적 차원의 권위적 공공성은 이제 지원체계로서의 공공성으로 그리고 공동체 주도의 주민 협력적 공공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변화는 과거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지방 거버넌스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 거버넌스는 정치 체계에서의 지방정부와 더불어 자본영역에서의 기업과 시민사회 구성원인 시민집단간의 관계 또는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 없이 협력과 참여라는 상호관계를 통해 도시 및 지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추진해 나아가는 방식을 지칭한다.⁵²⁾

공공성은 여가, 문화, 정치, 경제, 복지 등에 걸쳐 삶의 생활양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이와 다양한 공동체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다양한 지역문화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중심의 공공성

5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앞의 책, p.32.

52)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공간과 사회』, 21, 2004, p.146.

은 이제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진 사회적 공공공간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상호관련성을 자각하고 이러한 자의식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공공성을 형성하는 협력적 공공성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는 합의에 의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³⁾

〈표 2-3〉 도시공공성의 개념과 요소

구분	개념 요소	내용
조건적 요소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	공과 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과 사의 개념은 공간의 소유주체가 아닌 공간에서의 행위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해지며 유동적이다.
주체적 요소	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	행정은 주도와 관리의 역할이 아닌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근거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실천적 요소	가치공유와 합의형성 과정의 중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를 창출한다.
	관리운영 중시와 관리운영주체의 다양화	공간의 조성이나 시설의 양적 확보보다는 공간 조성 후의 지속적 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두며, 공간과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주체가 관리운영에 참여한다.
	난개발 지양과 지역·장소의 맥락 존중	공공성을 거꾸로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장소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한다.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2008), p.114.

53) 엽철호 외 2인, 앞에 든 책, pp.29-32.

3. 도시텃밭의 공공성

도시텃밭은 지역의 자생적인 노력을 토대로 발생하기도 하고 행정의 정책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도시텃밭은 주민들의 요구로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집단적인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발방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텃밭은 도시개발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차원에서 대두된 것이 아니고,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창출됐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에 반하는 단체가 형성되면서 지역에 알맞고 지역민이 원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도시텃밭은 농사라는 행위를 도시에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용한 토지를 찾는 노력이 바탕에 있다.

이는 도시텃밭의 태생적 배경이 지역민의 공동체를 위한 것에 한정되어있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농사라는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 즉, 도시사회적 기능의 목적이 있다. 전자와 같은 단체의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내부적으로는 결집력이 있으나 자칫 소수만을 위한 제한적인 공공성일 수 있다. 반면 후자는 다소 결집력은 낮지만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면에서 전자에 비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 모든 도시텃밭이 같은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성격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도시의 공공성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농사라는 행위가 도시텃밭이라는 장소를 토대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텃밭의 공공성일 수 있다. 그런데 불법적인 토지점유나 독점적 텃밭 운영 등 도시농업 영역의 확산에 따른 문제가 드러났다. 공공성의 측면에서 시민의 권리가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집단만의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도시의 공공성에서는 관계자들의 수평적인 의사소통 관계, 협력과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도시텃밭은 지역의 단체와 지역민이 관심을 가진 장소로 현대적인 공공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도시공간이다. 반드시 참여자가 존재하고 생산적 행위가 발생하는 도시공간이다. 내부 참여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아우르는 공동체를 위한, 공익을 위한 도시차원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3절 소결

도시농업은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농업활동을 말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으로 농사라는 행위의 차원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농업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텃밭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의 공간으로 이해한다. 도시텃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도시농업은 물리적인 공간과 비물리적인 행위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도시공공성은 이론적인 공공성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공간의 차원과 도시 사회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이 두 가지 부분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공간을 다루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아우르고 있으며 도시사회의 연구에서도 공간과의 관련이 중요하다. 도시텃밭은 두 요소의 접점에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도시농업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텃밭을 도시공공성의 관점으로 볼 때 행위적인 면도 공간적인 면도 배제할 수 없다. 도시텃밭을 도시 공공 공간의 측면으로 조망할 때 물리적인 측면의 접근과 함께 비물리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텃밭은 장소와 행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공공성이 발현된다. 그리고 두 가지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론 고찰을 통해 도시농업과 도시공공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도시텃밭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두 요소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물리적 공간의 공공성과 행위의 공공성을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 분석의 틀과 도시텃밭의 현황

제1절 분석의 틀

1. 분석방향의 모색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시공공성의 분석은 물리적인 요소와 비물리적인 요소로 나누어 <표 3-1>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의 세부내용을 통해 도시공공성 요소를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연구에서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요소를 관련 연구를 통해 도시공공성의 요소로 도출하였다.

<그림 3-1> 도시공공성의 요소 분류



물리적 부분과 관련한 요소는 여러 연구 중 다음의 논문을 중점으로 참고하였다. 이은비(1998)는 공공성을 접근성과 개방성, 연계성, 어메니티로 보고 있다. 접근성은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이 용이한 정도로 보고 있으며, 개방성은 도시공간에서 공개공지가 가지는 특징으로 이용자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이용으로 정의한다. 연계성은 인접한 공간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어메니티는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고 쾌적한 분위기를 통한 다양한 활동의 유치로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최남길(2003)은 정체성, 지역성, 쾌적성으로 공공성의 지표를 정의하고 있다. 정체성은 도시적 차원의 접근으로 장소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경관과 입지의 요소로 분석한다. 지역성은 지역의 공간적, 형태적 특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한다. 쾌적성은 환경적 측면으로 가로 및 주변환경, 주거환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상호 외 4인(2002)에서는 공공성과 관련된 어휘로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연계성, 편리성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⁵⁴⁾

도시공공성의 비물리적인 요소는 크게 참여의 측면과 과정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참여는 도시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 및 기관들을 말한다. 현대의 공공 공간에서의 공공성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그들의 구체적 사용 행위의 창조성을 통해서 구현된다.⁵⁵⁾ 공간에 참여하는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공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공간의 계획과 조성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경험은 변화가능한 도시공간의 미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외에 다양한 참여자들을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 공간이 가진 틀을 넘어 도시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공간에서 참여자가 중요해졌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도시공간의 공공성이 사용자들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역동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⁵⁶⁾

참여 측면에서는 주체적 요소, 공동체 요소로 분류했다. 주체적 요소는 공공성 측면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과 공공성의 주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수요소로 포함하였다. 참여하는 주체별 자체의 특성에 대한 면이다. 공동체 요소는 이러한 주체들의 공통과제,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도시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한 공동체의 노력 등의 이유로 포함하였다. 공동체 요소는 다양한 주체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의 요소를 담고 있다. 도시텃밭이 지역공동체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필수요소

54)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45-46.

55) 김성호, 이정아. “도시디자인에서 공공성과 시민적 창의성에 관한 연구,” 『예술과 미디어』, 11(2), 2005, pp.160-161.

56) 신승수,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 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343.

로 포함하였다. 주체와 공동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주체는 참여하는 객체별 의미로, 공동체는 이런 객체가 모여서 융화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구분하였다.

비물리적인 요소의 다른 하나인 과정의 측면은 절차적인 공공성에 관한 것이다. 참여한 주체와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도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것이다. 과정과 범위에 관한 절차는 지역민의 생활과 지역을 포함한 주변 도시환경의 미래와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공공성 개념은 개인이나 부분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전제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가 절차적 공공성의 차원에서 중요하다.⁵⁷⁾ 지역만들기의 의미 역시 지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관계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지적 범위를 포함한다.⁵⁸⁾ 결과적인 행위의 의미보다 과정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과정 측면에서는 협력적 요소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주체의 협의과정,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면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공공성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포함하였다. 텃밭의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요소와 운영 프로그램에서 공익과 공론을 위한 환경조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통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사소통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조성과정과 프로그램 등의 운영과정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의 측면이 참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상과 경험에 관한 것이라면, 과정의 측면은 전체적인 구조적 시스템의 관점이다.

57) 박진수, “공공성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2), 2013, p.10.

58) 신예철,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58-59.

〈표 3-1〉 선행연구의 도시공공성 관련 요소

연구자	연구내용	주요 요소
이은비(1998)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방안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어메니티, 이용률
김도형(1998)	도심재개발현상설계안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어메니티
이상호(2002)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어메니티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어메니티
이훈길(2003)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접근성, 연속성, 장소성, 위계성, 공간 구성
윤종국(2003)	도시건축 경관의 구성요소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역성(접근성, 위계성, 연속성), 지각성(시각질, 구성적 특성), 인지성(이미지, 정체성, 장소성)
최기원(2004)	지역문화시설의 ‘건축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신승수(2010)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 디자인 연구	주체적 참여, 공동체적 참여
정재훈(2010)	주민조직 리더십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계지향, 변화지향
신예철(2012)	지역만들기에서 지역공동체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 태도, 자율적 참여, 지속적 참여, 개인/참여/관계
이정원(2013)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연구	지역의 정체성, 참여의 위계, 협동적 체계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2008), p.44.

2. 분석의 틀

분석방향의 모색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은 물리적인 면과 비물리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하위 개념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요소들을 관계자 인터뷰와 예비조사를 통해 조정하였다. <표 3-3>과 같다.

물리적인 특성에서는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지역성으로 세분하였다. 접근성

은 접근동선, 이동시간, 인접공간과의 연계성, 내부동선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개방성은 물리적인 개방시간과 정도, 진출입구 및 경계부의 개방 정도를 조사하였다. 물리적 개방 정도뿐만 아니라 텃밭 내부에서 경작지 사적 공간들 사이에서 오는 심리적 개방 정도를 포함하였다. 쾌적성은 텃밭 내의 환경생태적 측면과 공공공간으로서의 휴게공간 및 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에 관해 조사하였다. 지역성은 텃밭이 지역적 특수성을 띠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텃밭이 지역적 인지성을 갖는지와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장소의 경관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비물리적인 특성에서는 참여적인 면과 과정적인 면으로 세분하였다. 참여적인 면은 주체성과 공동체성으로, 과정적인 면은 협력성으로 분류하였다. 주체성의 세부요소는 참여도, 개인의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개인들의 참여도와 경작 및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역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작활동과 도시텃밭에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공동체성의 세부요소는 공동체 조직 형성 및 모임의 빈도, 공동체 활동으로 나누었다. 공동체 조직 내의 내부적 교류와 함께 외부의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의 두 가지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공동체는 단위와 목표에 따라 그 규모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위별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해당 경작지 텃밭을 같이 일구는 공동체, 해당 도시텃밭을 같이 이용하는 공동체, 다른 텃밭과의 공동체로 단위가 나뉜다. 과정적인 면에서 협력성은 조성·운영·관리, 텃밭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협의과정의 공론을 비롯해 공익적인 면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은 현장조사와 함께 각각의 항목별로 관계된 사람을 심층 면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텃밭 참여자를 무작위로 설문조사하는 방식보다는 도시텃밭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적극적인 참여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항목은 <표 3-3>의 분석틀과 같다.

〈표 3-2〉 분석의 틀

구분	특성	분석 내용	세부 내용
물리적 특성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심리적 측면의 접근의 용이 · 인접한 공간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 	이동시간
			접근동선
			내부동선
			공간 연계성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텃밭 이용의 제약이 없고 자유로움 · 이용자 간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공간 	출입구
			경계부
			긴장완화공간
			공적·사적공간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 측면에서의 만족도 ·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없는 편의와 분위기 	편의시설
			환경생태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지역성 · 텃밭의 장소 정체성, 경관과 입지의 요소 	인지성
			장소적 의미
			경관요소
비물리적 특성	참여	주체성	· 주민의 참여 및 다양한 주체의 참여정도
			·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발성과 일상성
	공동체성	공동체성	· 상호작용을 위한 지역커뮤니티의 거점 역할
			· 주민조직의 형성과 적극적인 주민의 리더십
	과정	협력성	· 공동체 의식 강조를 통한 지역 현안의 자각
			· 지속적인 관리·운영, 이해관계자 관계
			· 다양한 논의, 충분한 의사소통
			· 공론의 과정을 거친 합의적 과정

3. 조사항목의 구성

조사항목은 〈표 3-3〉의 분석틀을 구체화하여 구성하였다. 이에 근거해 현황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 조사할 항목의 경우 〈표 3-3〉의 분석틀에 나타난 세부 분류를 구체화하여 〈표 3-4〉의 심층 인터뷰 분석내용으로 정리하였다.

〈표 3-3〉 심층인터뷰 분석 내용

특성			세부 분류	인터뷰항목	예상답변
물 리 적 특 성	접근성		이동시간	· 이동시간에 대한 의견	오래 걸림
			접근동선	· 접근 수단과 장소 위치에 대한 의견	접근의 어려움
			내부동선	· 내부에서 이동의 편의성	불편함
			공간 연계성	· 인접한 공간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	고립된 공간
	개방성		출입구	· 출입구의 현황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한정에 대한 의견	출입구 부족
			경계부	· 경계부의 현황에 대한 의견	폐쇄적
			긴장완화공간	· 텃밭 경작지 이외 공간에서의 자유도	자유도 없음
			공적 · 사적공간	· 경작지와 생산물에 대한 소유감	사적인 공간
	쾌적성		편의시설	· 공간이용에 필요한 기본시설 구비	시설의 부족
			환경생태성	· 생태적 측면의 만족도와 의견	관리 부족
	지역성		인지성	· 지역의 도시텃밭이라는 인식 정도	인식 안 됨
			장소적 의미	· 이곳 도시텃밭만의 특색에 대한 의견	특별함이 없음
			경관요소	· 텃밭이외 경관요소 존재 유무	경관이 좋음
비 물 리 적 특 성	참 여	주 체 성	참여도	· 참여이유, 방문빈도, 체류시간	참여의지 좋음
			개인의 역량	· 참여기간 및 재참여 의지 · 적정 방문 횟수에 대한 견해 · 협력적 참여에 대한 이해와 견해	의지의 빈약, 갈등관계 있음
		공 동 체 성	공동체 형성	· 공동체를 형성 정도와 그 형태	공동체 종류
			공동체 활동	· 공동체 활동의 프로그램 종류(내부 · 외부) · 공동체 간의 유대관계 정도	상호작용, 진행 프로그램
	과 정	협 력 성	협의와 공론	· 조성과 운영 · 관리의 과정에서의 공론 · 공동이 가진 문제에 대한 관심 여부 · 의사소통의 정도에 대한 만족도 · 다양한 주체에 대한 자각 정도	회의 빈도, 회의 내용, 정보의 공개, 평가방식
			운영의 공익성	· 지속적인 관리 · 운영 프로그램의 공익성 · 참여 경작자들의 공익적 태도와 의견	진행 중인 공익 프로그램

제2절 도시텃밭의 일반적 현황

1. 노들텃밭의 현황

(1) 일반적 현황

노들텃밭은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146에 위치한다. 노들텃밭은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노들섬은 개발이 지연되면서 유휴부지의 이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던 중 도시농업 단체에 의해 임시적인 텃밭의 사용이 건의되었고 서울시가 수락하면서 노들섬에 텃밭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림 3-1〉 노들텃밭의 위치

면적은 약 20,000㎡이다. 노들섬 약 60,000㎡ 중 테니스장 부지를 우선 공원화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차후 공원화 할 예정에 있다. 노들텃밭은 서울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곳으로 시민텃밭 6,000㎡, 공동체텃밭 2,300㎡, 맹꽁이논 1,000㎡, 토종밭 500㎡, 미나리밭 300㎡ 등 농사면적만 10,000㎡가 넘는 대형 도시농업 공간이다. 도시농업공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는 7년간 비어있던 빈 땅을 도시농업의 욕구를 가진 주민들과 도시농업 시민단체,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였다.

2012년 2월 농업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고, 4월 농업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 서울시의 도시농업 업무는 서울시 경제진흥실과 생활경제과 도시영농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노들텃밭은 공원녹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도시농업활성화 차원에서 텃밭만이 아닌 텃밭을 통한 도시공공성의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2월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고 2012년 3월 노들텃밭 운영위원회에서 조성 및 운영의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획·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경작활동 이외에도 체험·전시·교육이 결합된 도시농업거점으로서의 공간화, 자원순환 등 생태원칙에 부합하는 시설 도입 및 운영, 자율과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제공, 주말농부시장, 농부학교 등 나눔과 교육의 공간화 등이다.



〈그림 3-2〉 노들텃밭 모습



〈그림 3-3〉 노들텃밭 모습

2012년 5월부터 시민과 여러 도시농업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일반텃밭은 시민들이 6.6㎡씩 분양받고 참여하여 총 6,000㎡가 운영 중에 있으며, 공동체텃밭은 도시농업관련단체에서 2,300㎡를 분양받아 경작 중에 있다. 공동체텃밭은 도시농업시민협의회를 통해 신청을 받았고 7개 농업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 서울한살림, 텃밭보급소,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농사짓는변호사모임, 농협서울지역본부가 참여했다. 참여면적의 30%는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노들텃밭은 단순히 농사짓는 경작활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소규모 도시텃밭과 주말농장에서 부족한 점으로 지목된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했다.

기존의 텃밭위주 도시텃밭과 달리 곳곳에 유실수를 심거나 농작물이 전시될 수 있게 하는 시도로 전체 경관을 고려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도시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표 3-4〉 도시농업공원의 차별화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텃밭 위주	텃밭 외 생태숲·농작물 전시 등
휴식 및 편의시설 부족	피크닉·화장실 등 편의시설확보
전시 및 교육시설 부재	실내 및 실외 전시와 교육시설 확보
유아 동반 불편	휴늘이장 등 자연놀이공간 확보
교통 불편	대중교통 편의 제공, 인근 접근성 확보
시설 제공자 위주 운영	텃밭 분양자 주체적으로 운영 참여

서울시는 앞으로도 세 주체인 주민, 단체, 기업들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 노들섬에서 도시의 농업과 건강함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들텃밭이 서울 도시농업의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노들텃밭은 현재 다양한 농사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토종농부교실’은 노들텃밭을 한 바퀴 돌아보며 도시농사에 대해 전문가에게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노들섬투어’는 노들섬의 경관을 즐기며 섬을 탐방하며 노들섬과 한강, 주변 지역의 역사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는 농사짓는 변호사,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한살림, 짬지농부,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 텃밭보급소, 흙살림 등이 있다.

(2) 지리적 현황

① 교통

노들텃밭 남쪽으로는 지하철 9호선이 있고 위쪽으로는 중앙선과 4호선의 이촌역과 1호선, 4호선의 용산역이 있다. 한강대교 북단에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지하철만으로 이동할 경우는 9호선 노들역을 이용해야 한다. 도보로 접근하면 10분 정도 소요된다. 버스만으로 접근 시 14대의 간선버스가 노들텃밭 바로 앞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한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한강대교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방향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북쪽으로 향하는 버스를 이용 시 한강대교 북단 버스정류소에 하차 후 반대편 방향으로 한 정거장을 환승을 통해 갈 수 있다. 정식 주차장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필요시 노들텃밭 내부에 임시 주차할 수는 있지만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수확시기에는 자가 차량으로 수확물을 수거 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평소에는 노들텃밭의 출입문이 열쇠로 잠겨있기 때문에 사전보고가 필요하다. 노들텃밭을 통과하여 노들섬 공사현장으로 가는 차량들이 텃밭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다. 경작자들은 텃밭 입구에만 주차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신의 텃밭에서 텃밭 입구까지는 리어카 등을 이용해서 나를 수 있다.

② 도시조직

한강에 떠 있는 섬 노들섬은 서울의 도시조직으로 볼 때 중심에 위치한다. 한강 노들섬은 수직적으로 북한산, 남산, 관악산에 이르는 서울의 큰 자연축의 연장선 속에서도 도심의 한가운데에서 시민이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 될 수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다양한 개발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북한산과 남산과 관악산 등에서 시민들이 산이 주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노들섬을 통해서도 한강 친수공간으로 물이 주는 안정과 평안함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의 조직에서 볼 때에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다. 현재 노들섬의 진입은 좌측 노들텃밭으로만 진입이 가능하다. 텃밭을 제외한 구역은 직접 입장이 제한되어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유보된 공간이고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다.

③ 주변 환경

노들섬의 북동측으로는 서울의 업무, 행정 영역의 중심부인 시청 및 사무공

간이 위치해 있다. 서울역과 용산역이 인접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미군기지 등이 위치한다. 남측으로는 도시민들의 주거가 많은 노량진과 흑석동 등의 주거지역이 위치해 있다. 또한 서측에는 사무시설이 밀집한 여의도, 남동측으로는 국립현충원, 강남 등이 연계된다. 한강변 북단에는 이촌한강공원이 있고 서쪽으로는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가 위치한다. 한강변을 따라 서쪽에는 밤섬, 동쪽에는 세빛둥둥섬이 가까이 위치한다. 여의도에서 한강을 왕복 운행하는 수상 택시가 한강을 지난다. 노들섬은 인근에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해있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인다.

(3) 인문·사회적 배경

한강에는 선유도, 밤섬, 노들섬의 세 개의 큰 섬이 있다. 선유도는 과거에 정수처리장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선유도 공원이 되었다. 선유도는 이용자가 직접 한강에 떠 있는 섬을 이용하는 최초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에서 섬을 바라보는 경관을 제공한다. 서울의 공원 중 만족도가 높은 공원이다. 밤섬은 마포대교 하류에 위치한 섬으로 천연 기념물을 포함한 41종의 조류와 108종의 식물, 28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철새 도래지이다. 1999년 8월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두 섬의 연장선에 노들섬이 위치해 있다. 노들섬은 서울시의 경관자원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다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소이다.

(4) 역사적 변천

노들섬은 우리 고유 지명으로 일제시대에 중지도라 이름을 붙여 사용했으나 이후 노들섬이란 이름을 다시 쓰게 되었다. 한강대교의 중간에 위치한 노들섬은 정조가 배다리를 놓았던 자리이다. 이 섬은 전에 납천정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을에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어 그 물을 관중에 상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한강대교가 가설되면서 사라지고 우물도 자취를 감추었다. 노들섬은 한때 한강의 모래를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지금

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노들섬은 건영의 사유지로 강가 쪽 호안만 한강시민공원의 이촌 지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2005년 서울시로 이전되었다.

노들섬은 1916년 이전에 용산 이촌동과 연결된 100만평 규모의 모래벌판이었다. 모래밭 마을이라 하여 사촌으로 불리었다. 여기서 바라보는 석양은 ‘사촌모경’으로 용산 8경중 하나였다. 1917년 10월 1만평 규모의 섬을 형성하였다. 중지 제1도가 만들어졌다. 백사장에 석축으로 조성하였다. 이는 남측 한강교와 북측 한강소교를 연결할 목적으로 만든 인공섬이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북측 제방이 유실되는 일이 있었고, 1929년 9월 북측 한강소교를 철거하고 현재의 교량을 신설하였다. 1934년에서 1937년까지 남측에 현재의 교량을 신설하였다. 1968년에서 1969년 사이 한강 개발계획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현재의 이촌동을 형성하였다. 개발 전까지 여름에는 백사장과 물놀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인 유원지로 이용되었다. 1973년에는 섬 매립공사가 진행되었다. 기존 1만평 규모의 섬은 4.5만평으로 확장되었고 옹벽이 설치되었다. 시공사였던 진흥기업에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시민들은 발길이 줄었다. 1979년에서 1982년 사이 신교가 축조되었다. 1982년에서 1986년에는 호안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다. 노들섬의 면적은 3.6만평으로 확정되었다. 매립된 이촌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1989년 5월 소유권이 주식회사 건영으로 이전되었다. 1995년에는 일제 지명 개선사업을 통해 노들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노들의 어원은 노랑에서 노들로 그리고 노들로 변천한 것이다. 2005년 6월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하게 된다.⁵⁹⁾

59) “노들섬의 역사,”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28395> (검색일: 2013년 9월 30일)

호정이 옮겨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생태환경단체는 시민들이 밭과 과수원으로 활용했던 곳에 국공장이 이전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 인근 주민과 은평구민의 의견수렴도 이루어졌다. 결국 서울시는 2011년 11월 도시농업공원부지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2년 갈현도시농업조성민관협력이 추진되고 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불법경작지로 쓰이던 텃밭은 2012년 8월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4년에 현재의 도시텃밭과 함께 공원의 시설을 추가하여 갈현도시농업체험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그림 3-5〉 갈현텃밭 출입구



〈그림 3-6〉 갈현텃밭 모습

국공장 설치를 계획했던 갈현근린공원 사업과는 다르게 야외학습장(텃밭), 치유정원, 도시농업체험관, 다목적 운동공간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텃밭 속에 자연학습장과 치유정원, 농업기술교육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체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도시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텃밭공원을 추진 중이다. 면적은 15,694m² 에서 24,516m² 로 확대되었다. 2013년 11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서울시의 계약기간은 끝나게 되고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2013년 10월 현재 사유지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상절차의 문제와 현재 경작되고 있는 경작물의 수확과 관련하여 공사는 약간 미뤄질 전망이다. 201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참여중인 활동인원은 인근 주민과 서울시민으로 구성되어 총 500명 이상이다. 전체 300구좌가 있다. 텃밭 주변의 주민과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기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공근로자 1인과 총 2인

이 텃밭 조성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체텃밭은 5인 이상에서 10인 단위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다. 동일 단체는 최대 4구좌까지 신청가능하고 각 공동체는 15㎡~60㎡를 할당받았다.



〈그림 3-7〉 갈현텃밭 씨앗들 협동조합

자료 : 씨앗들 협동조합



〈그림 3-8〉 갈현텃밭 비빔밥 만들기

자료 : 생태보전시민모임

(2) 지리적 현황

① 교통

갈현텃밭은 북쪽으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있고 남쪽으로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이 있다. 지하철에서 갈현텃밭으로 접근은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린다. 버스를 이용해서 은평경찰서와 서울연신초등학교에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통일로에서 접근할 경우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정류장에 하차하면 된다. 버스는 통일로 쪽에서 20여대, 연서로 쪽에서 5대가 정차한다. 통일로 쪽에서 걸어 올라가면 20분 정도 걸리고, 연서로 쪽에서는 7분 정도 소요된다. 갈현텃밭의 정식 출입구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좌측 언덕에 위치한다. 그러나 은평 경찰서 뒤쪽 골목을 이용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정식 주차장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필요시 갈현텃밭 인근 골목에 임시 주차할 수는 있고 텃밭 내 공터에 임시로 주차가 가능하다. 수확 시기에는 입구 주변에 정차하고 차량으로 수확물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갈현텃밭은 갈현근린공원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갈현근린공원 남쪽에 위치한다. 북쪽에는 은평뉴타운이 있는데 그쪽에서 접근하기는 어렵다.

② 도시조직

은평구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다. 고양시 덕양구와 인접하고 있다. 고양시와 파주시를 통하는 길은 은평구에서 이어진다. 갈현터밭은 은평구에서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그 위로 은평뉴타운이 생겼지만 생기기 전이라면 외곽 끝부분으로 볼 수 있다. 동쪽으로는 북한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서오릉이 있고 도시가 끝나는 부분이다. 남쪽으로는 마포구, 서대문구와 인접한다. 동쪽으로는 종로구와 시청으로 연계된다. 서울의 제 1호 도시농업공원 예정지가 되었지만 서울시민의 접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갈현근린공원은 근린지역의 공원인데 갈현터밭을 서울시의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상충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주변 환경

인근에는 주거지가 많다. 북쪽에는 은평뉴타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남쪽에는 연립주택이 있다. 동쪽에는 북한산 향로봉의 모습이 보인다. 은평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 노후화된 주거지가 많다. 은평구는 2013년에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은평구는 땅의 힘이 좋은 곳이다. 서울의 주산인 북한산을 동쪽으로 직면하고 서쪽으로는 서오릉 자연공원이 받쳐주고 북으로는 서울시의 경계인 창릉천이 가로질러 한강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남쪽으로는 서울의 서북 관문인 박석고개와 갈현근린공원, 구파발목과 진관근린공원 등의 자연 산세와 폭포동, 물푸레골, 못자리골 등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개천과 습지들이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3) 역사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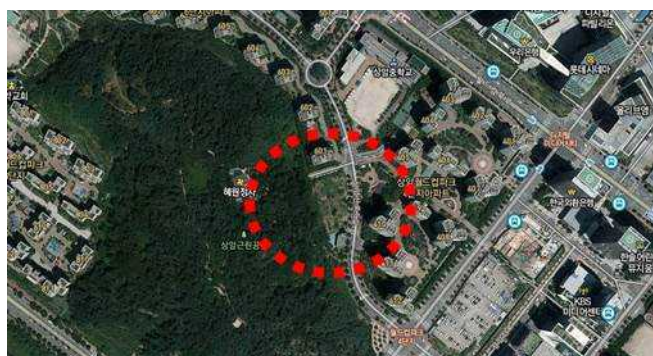
갈현터밭은 갈현근린공원의 남쪽 인접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갈현근린공원은 특별한 역사가 없다. 동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 서쪽으로는 서오릉 자연공원 등과 인접한 녹지지역이었다. 갈현공원으로 불리는 이곳은 해발 123m 정도

의 산이다. 갈현텃밭과 갈현근린공원이 갈현동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명칭의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갈현근린공원의 면적은 14만 7,859㎡이다. 제1구역은 은평경찰서에서 통일로 박석고개까지 연결된 지역이고, 제2구역은 은평경찰서 맞은편에서 불광중학교 뒷산을 거쳐 북한산국립공원 매표소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제1구역 북쪽 산자락에 은평구립체육센터와 은평구립체육관이 자리한 은평구의 대표적 체육공원으로, 각종 운동·편의시설 70개가 설치되어 있다. 갈현공원은 은평구 진관공원(진관근린공원)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묘지로, 곳곳에 분묘가 흩어져 있다. 갈현텃밭의 역사는 2010년 갈현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이 결정되면서부터 나타난다.

3. 상암두레텃밭의 현황

(1) 일반적 현황

상암두레텃밭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91에 위치한다. 면적은 약 2,300㎡이다. 상암두레텃밭은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의 결성이 텃밭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0년 12월 텃밭보급소 안철환 소장의 ‘도시농업을 일으키는 방법-도시농업 추진 매뉴얼⁶⁰⁾’의 자료가 공유되면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여러 단체가 모이게 되었다.



〈그림 3-9〉 상암두레텃밭의 위치

60) 지역 내 단체와 개인 모으기, 도시농부학교 설립, 도시농업 현장 조직 팀 구성, 상자텃밭 보급, 농장 확보, 장터 한마당 축제 개최, 조례 만들기,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 개발, 지역 먹거리 운동의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후 2011년 2월까지 4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거치며 마포 지역의 도시텃밭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 3월에는 마포구 도시농업 사업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온라인 소통 공간 확보, 마포의 민관 협력체계,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설, 마포 지역 도시농업 잠재적 대상지 조사, 공동경작·상자텃밭 보급 등의 시범사업, 마포구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2011년 10월 마포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포구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2012년 3월 상암두레텃밭이 공식으로 도시텃밭으로 인정되었다.



〈그림 3-10〉 상암두레텃밭 입구



〈그림 3-11〉 상암두레텃밭 개인텃밭

처음 상암두레텃밭을 발견한 때는 2012년 이전이었다. 2010년 12월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의 회원들이 마포지역의 도시농업 현장조사를 하면서 상암두레텃밭 공간을 발견하였다. 당시 그 공간은 마포구청의 소유로 지목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었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견인차 차고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텃밭을 경작하는 주민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마포구 주민들은 그 공간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하는 시기이기에 몇 년째 불법 무단경작을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마포구의 공공텃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마포구의 담당 공무원과 도시농업 단체가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지만 처음에는 일부 주민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2011년에도 불법으로 경작되었다. 그 후 2012년 서울시의 도시농업 정책에 따라 마포구 도시농업 조례가 제

정·공표 되면서 도시텃밭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농사를 지어왔던 게릴라 농부들과 마포 도시농업네트워크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공동체 텃밭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상암두레텃밭에 참여하는 단체는 귀농운동본부(텃밭보급소), 동네예술가, 마포두레생협, 마포문화재단, 문턱없는밥집, 민중의집, 개똥이네 책방,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여성미래), 환경정의 등이 있다. 운영위원장은 여성미래, 문턱없는밥집, 환경정의가 맡고 있다.

경작공간에 참여하는 주민은 60명으로 정했다. 기존에 경작활동을 하던 주민 30명과, 신규 참여자 30명이다. 불법경작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게릴라 농업으로 빈 땅에 농사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한 결과였다. 60명은 12개조로 나누었고 기존 경작자와 신규 경작자가 섞이도록 편성했다. 12명의 조장과 3명의 공동대표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힘쓰고 있다.



〈그림 3-12〉 상암두레텃밭 교육

자료 :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그림 3-13〉 상암두레텃밭 장터

자료 :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내용은 선정 주민에게 텃밭 무상 분양 후 자율운영방식이다. 수확물의 50%는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친환경농업, 대중교통이용 등 텃밭 운영규칙이 있다. 그리고 텃밭 운영과 관련한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직거래 장터, 소외이웃 돕기 등의 행사가 있었다. 상암두레텃밭이 추구하는 가치는 교육텃밭, 소통텃밭, 실험텃밭이다. 유기순환형 농사와 생태 교육장의 역할의 교육의 기능, 주민참여와 자치책임, 기

부장터로 소통의 기능, 퇴비화 실험, 예술문화 공간으로 실험의 기능이 있다. 도시농부학교 텃밭에서는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의 정기실습이 있고, 체험 텃밭에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한 체험교육공간이 마련되어있다.

(2) 지리적 현황

① 교통

상암두레텃밭은 동쪽으로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역이 있다. 지하철에서 상암두레텃밭으로 접근은 도보로는 20분 정도 걸린다. 버스를 이용해서 누리꿈스퀘어에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버스는 월드컵북로에 12대가 정차한다. 버스 하차 후 도보로 5분 거리에 텃밭이 위치한다. 정식 주차장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필요시 상암두레텃밭 바로 앞 도로가에 정차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정차에 따른 큰 불편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하늘공원과 난지천공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

② 도시조직

상암두레텃밭은 마포구 상암동에 있다. 마포구는 서울의 서부에 위치한다. 고양시와 인접하고 있다. 상암동은 마포구 내에서도 서쪽이다. 상암두레텃밭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도시조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주거지와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 업무지역이 인접한다.

2002년부터 용지공급이 시작된 이래 월드컵 경기장과 공원, 친환경주거단지(Eco Village)등과 함께 상암새천년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상암 DMC에는 방송, 언론, IT 기업 등 21세기형 지식정보기반 산업군이 클러스터 형태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2015년까지 상암 DMC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③ 주변 환경

인근에는 주거지가 많다. 상암두레텃밭은 상암월드컵파크 단지 내에 위치한

다. 남쪽에는 상암근린공원과 인접하고 있다. 동쪽에는 매봉산과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 남쪽으로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과 가깝다. 한강변에는 난지한강공원이 있다. 인근에 녹지시설은 많은 편이다.

(3) 역사적 변천

상암두레텃밭은 도시 유희부지로 특별한 역사가 없다. 텃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이전에는 인근 주민에 의해 불법경작되었다. 텃밭의 남쪽 인접지역에 상암근린공원이 있다. 상암근린공원은 2006년 1월 1일 개원했다. 주요시설에는 생태연못, 생태습지, 암석원 등이 있다. 운동기구, 화장실, 연식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다. 면적은 약 16만㎡이다. 상암두레텃밭은 지역구 단위에서 도시텃밭 조성부지를 찾으면서 발견된 장소이다.

제3절 도시텃밭의 일반적 특성

1. 현장 참여자 중심의 공동체계

도시텃밭의 현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 첫 번째는 텃밭현장의 참여자 중심의 공동 체계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자율성이 주어진 반면 책임감도 주어진 공간이다. 특정인에 의해서 공간이 규정되는 것이 아닌 공동의 공론을 통해 계획이 수립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기 운영회의는 텃밭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회의는 내부에서 계획한 것과 외부 단체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하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각 단체는 사전에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운영위와 기타 참여자들과 검토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양방향에서 수평적으로 진행된다. 현장에 오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배제될 수 있는 체계이다. 외부의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는 것과 별개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론에 참여하면서도 공동체 의식이 쌓여간다. 공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소 경쟁의식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의사발언을 하고 있다.



〈그림 3-14〉 정기 운영회의



〈그림 3-15〉 프로그램 회의

2. 내부지향적 행위의 외부확산

도시텃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 두 번째는 내부 지향적 행위를 외부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에 일어나는 활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텃밭은 기본적으로 내부 지향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다. 경작행위가 1차적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활동이다. 이런 행위는 개인텃밭과 공동체텃밭이 나뉘어져있는 것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공동체 텃밭에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경작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도 외부지향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공동체내부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이런 행위가 개별적인 사익을 위한 일이라면 공간은 내부 지향적으로만 남아있게 되고 폐쇄성을 떨 수 있다. 그러나 현황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시텃밭은 내부의 행위를 외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생적인 노력이 동반하고 있었다. 공공 공간에서의 경작활동을 사회 공익의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민에게 심리적으로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과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교육은 농업뿐만 아니라 생태교육을 동반하고 있다.

외부확산을 위해 외부의 공동체 단체가 들어와서 경작자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거나 내부 활동을 돕고 휴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텃밭이 농사만을 위한 공간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6〉 이웃탈탈라 운동회



〈그림 3-17〉 소소모모 카페

3. 자발적인 공간계획

도시텃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공간계획을 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직접 공간계획에 참여하고 물리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장소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더 나은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도시텃밭에서 물리적인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예산의 부족이나 행정의 연계 등에서 나타나는 한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용자들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다. 텃밭의 형태, 규격, 경계부 처리, 텃밭 출입구, 화장실 등 텃밭의 공간을 차지하는 많은 것들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서 구현되고 있다.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여 손수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직접 노동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공동이 모여 공론을 형성하고 공익을 위한 일을 찾으면서 이를 물리적으로도 실천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다. 공간의 계획은 비단 공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작자 등의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 참여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외부의 시선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도시 공간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려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림 3-18〉 텃밭 내 계단 만들기

자료 : 마포구 도시농업네트워크



〈그림 3-19〉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진입 계단

자료 : 노들텃밭 관리센터

제4장 도시텃밭의 특성 분석

제1절 물리적 측면의 분석

각 요소는 장소별로 현장조사의 내용과 전문가 심층인터뷰, 경작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1. 접근성 측면

본 연구에서 접근성은 이용자가 도시텃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했다. 접근성은 직접적으로 대상지로 도달하기 쉽고 가깝다는 물리적인 정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체험의 느낌을 포함하였다.

접근성에 대한 물리적 측면 특성분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인터뷰 질문문항은 <표 4-1>의 내용과 같다. 이동시간, 접근동선, 내부동선, 공간의 연계성으로 나누었다.

<표 4-1> 심층인터뷰 접근성 측면의 질문내용

대분류	소분류	질문내용
접근성 측면	이동시간	걸리는 이동시간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대한 의견은?
	접근동선	접근하는 수단은 무엇이고 위치에 대한 의견은?
	내부동선	텃밭 내부에서 원하는 장소로 접근하기에 편리한지?
	공간의 연계성	인접한 공간들과 연계하고 있거나 연계가 자연스러운지?

이동시간은 각 참여자가 거주지에서 텃밭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하고 그 시간의 길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 조사하였다. 접근동선은 외부에서 도시텃밭으로 오는 동선의 상태를 본다. 주변동선을 포함해 도시텃밭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의 개수와 상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내부동선은 텃밭안의 주요 공간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조사했다. 참여자가 느끼는 접근정도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설의 안내표시와 같은 것과 배치 및 방향에 대해 인지하기 편리한지 조사하였다. 공간 연계성은 인접한 공간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와 주

변의 시설 및 공간과의 관계와 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간과 공간이 유사한 점을 가지고 연계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공간들 사이의 연계전략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1) 이동시간

이동시간에 대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지만 이동시간 자체보다는 텃밭의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각 텃밭의 전문가에 의하면 거주지에서 텃밭까지의 이동시간은 대체로 20분~30분 정도 걸리는 이용자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현장조사 결과 불특정한 서울시의 한 장소에서 도시텃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짧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의 위치가 서울시 외곽에 있거나 현재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텃밭을 이용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다만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텃밭은 비교적 가깝다. 자치구 별로 도시텃밭의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도시텃밭으로의 이동시간은 지역별로 다르다. 전반적으로는 도시텃밭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시간은 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농업 전문인과 관리자는 접근수단에 관계없이 보통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았다. 도보로 이동시에도 30분 이내의 거리의 이용자가 많았다. 인근의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동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경작자 대표는 이동시간 자체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으나 팀원끼리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참석률이 낮은 경향이 있고 일이 적절히 분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시간이 비슷한 사람 혹은 비슷한 지역에서 오는 경작자끼리 공동의 소규모 그룹을 이루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도시텃밭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과거에 도시농부들이 주말농장이 있는 도시 외곽으로 갔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2) 접근동선

접근수단에 대해 자가 차량 이용도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시텃밭의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텃밭의 위치에 대한 만족 여부는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다하더라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다. 텃밭 주변부에서 텃밭으로 진입하는 동선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장조사 결과 도시 내 대부분의 텃밭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사례가 되는 세 텃밭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대상지 텃밭에는 모두 공식 주차장이 없다. 상암두레텃밭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에서 버스로 환승해서 찾아갈 수 있다. 버스 하차 후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상암두레텃밭은 마포구에서 이용가능한 공간인데 버스로 이동시 마포구 어디서든 바로 오거나 한 번 정도의 환승으로 도달 할 수 있다.

갈현텃밭의 경우는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갈현텃밭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이다. 역시 대중교통을 권장하고 있다. 지하철로 접근하는 방법은 구파발역과 연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내려서 버스로 3~4정거장을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버스 하차 후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 그러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갈현텃밭이 큰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주택가를 통과하여 산등성이 언덕을 올라가서 찾을 수 있다. 갈현텃밭은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사유지 텃밭과 붙어있어서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들텃밭은 노들섬이라는 지명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알려진 장소기 때문에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노들텃밭은 주거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했다. 노들텃밭은 지하철로 이동 시 노들역과 신용산역을 이용한다. 현재 노들섬 서쪽에만 도시텃밭이 존재하고 있고 한강대교에서 횡단을 할 수 없으므로 노들역을 이용할 경우 도보로 접근해야하고, 신용산역을 이용할 경우 1정거장을 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

도시농업전문가에 의하면 참여하는 사람의 다수가 도보로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과 대중교통 연계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안전하게 구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 공간에서 외딴 곳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길가에 방치하거나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경우가 발생했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접근성이 중요한 때 중 하나가 수확기인데 이때는 많은 경작자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배추와 무 등 무게가 나가는 수확물을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운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차량의 이동으로 텃밭이 조금은 어수선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리 공지하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위치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해서는 텃밭의 위치에 불만을 가진 참가자는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 텃밭 자체의 땅이 농사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불만과 텃밭 내 환경에 대한 불만사항은 발생하지만 위치자체에 불만을 가진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그림 4-1〉 자전거로 방문하는 경작자



〈그림 4-2〉 수확시기 보고 후 자동차 이용

경작자에 의하면 처음 방문 시 30분 이상 걸렸다는 의견이 있었고 재차 방문 시에도 길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갈현텃밭의 경우 갈현근린공원이 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갈현근린공원과 갈현텃밭을 혼동해서 잘

못 찾아간 경우도 있었다. 상암두레텃밭 역시 아파트 단지 앞에 만들어지면서 찾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들텃밭은 인근의 용산구 텃밭의 일부가 이주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노들텃밭은 신규 참가자로 오더라도 노들역, 노들섬 등의 지명으로 인해 인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였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이용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근 지역과 자전거 도로 연결은 잘되어 있다는 평가다. 노들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이용하는 경작자도 있었으나 현행법상 불법주정차 구역이고 장소 역시 협소하여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경작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불만이 있었다. 특히 갈현텃밭은 버스와 지하철 모두 가까이 위치하지 않아서 타 텃밭에 비해 다소 불만사항이 더 많았다.

노들텃밭으로 용산구 도시농업 단체의 입장으로 참여하는 담당자는 용산구 내에 마땅한 도시텃밭이 없고 한강시민공원에서도 텃밭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노들텃밭에라도 경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용산구에서 접근하기 멀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지역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참여하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시농업 단체 전문가에 의하면 텃밭의 성격에 따라 접근성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도시농업으로서의 상징성이 있고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다소 멀고 접근하기 쉽지 않더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작자 개개인들과 도시농업 단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과정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과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최초 도시텃밭 계획을 결정할 때 접근성을 많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였다. 도시텃밭을 요구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면을 고려하였고 각 지자체별로 준비단계는 다른데 조성을 앞 다투어 하다 보니 다소 여러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도시텃밭을 처음에 조성할 때 특별히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고요, 우선 빈 땅에 도시농부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진행하다보니 다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이 최근에 바뀌면서 어떤 형태의 도시텃밭이 되어야 할지 명확한 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접근동선은 지역민 위주로 고려해야 할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할지에 따라 주차시설이나 대중교통 연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최 OO

(3) 내부동선

내부동선에 대해 조금은 계획적인 측면에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었다. 내부에서의 이동이 부각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방문자들이 전체 텃밭의 공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와 경작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다.

현장조사 결과 모든 텃밭 내에서 공간의 안내표식이 부족하다. 이는 텃밭 자체의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규모가 큰 노들 텃밭에서도 이와 같은 점은 발견된다. 텃밭 공간을 특수한 구분에 의해 나누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공간의 특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인경작자의 텃밭과 공동체 텃밭 등으로 구분으로 나뉘어 있고 농사의 형태에 의해서도 구분된다.

표식은 개인텃밭, 공동체텃밭 등 이용자에 의해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소방의용대’, ‘OO초등학교’ 등 텃밭을 운영하는 단체의 이름과 ‘아름다운 텃밭’ 등 임의로 만들어진 이름의 표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표식의 대부분은 평면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그 공간 바로 앞에서 인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작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텃밭 위치만을 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인지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림 4-3〉 텃밭 내부 보행로



〈그림 4-4〉 텃밭 안내판



〈그림 4-5〉 경작지 표식

경작자에 의하면 처음 텃밭을 분양받을 때 관리자에 의해 안내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공간의 배치나 안내 표식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자신의 텃밭 이외에는 특별히 방문할 일이 없고, 텃밭 공간 전체를 경작을 하기 위한 땅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내표식 및 공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 경작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내부동선의 경우 가장 소규모인 상암두레텃밭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상암두레텃밭은 공간의 규모가 작고, 사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의 특성상 아래쪽과 위쪽의 연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화장실과 농기구 보관함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관리를 하는 센터가 정해져있지 않고 농사와 관련한 시설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면 중앙 부근에 경작자들이 만든 길은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등의 사소한 문제도 발견되었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갈현텃밭은 공원에정지로 결정된 이후 한번 정비가 되면서 어수선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불편함은 있지만 자연의 특성상 도시의 잘 정비된 계획형 동선보다는 이대호가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새로 만들어질 공원이 자칫 자연적인 모습보다 도시적인 모습으로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경작자에 의하면 갈현텃밭은 공간 구분이 사면의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인지하고 있었다. 갈현텃밭은 입구에 관리센터가 있고 농기구 보관소, 화장실 등이 같이 있어 중심의 역할을 해줘서 좋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내부의 길이 넓지는 않지만 중앙의 길과 텃밭으로 들어가는 작은 길들이 정리가 잘 되어있어 불편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동에 필요한 정도의 너비만 되면 텃밭의 면적이 더 큰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4-6〉 갈현텃밭의 경사지와 평지



〈그림 4-7〉 노들텃밭 중앙 보행로

노들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노들텃밭은 최초 조성을 계획할 때 공간 설계를 조경 전문가에게 의뢰하였고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하였다. 다른 텃밭에 비해 공간 면적이 크고 동선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있어 큰 불편함은 없다는 의견이다. 최초 공간구획을 할 때 경작지 이외의 보행공간을 정하고 주 통행로를 넓게 설정했다. 이는 경작자들에게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현재 그 공간을 다수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쓰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노들텃밭 운영협의회 도시농업 단체 전문가에 의하면 내부의 공간과 동선들은 경작자 및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텃밭이 가진 목적에 부합하게 공간을 이용하고 변형해 나가는 유연함을 갖는 게 현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 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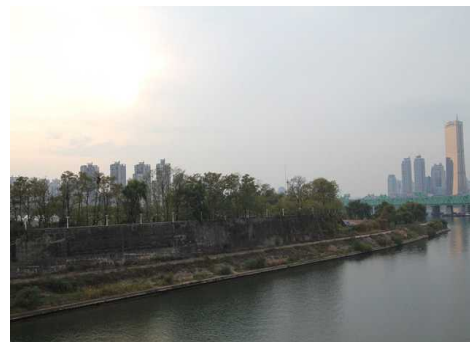
(4) 공간의 연계

공간의 연계에 대해 도시텃밭이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로 다른 시설 및 공간들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작동하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 여건상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텃밭을 다른 어떤 것들과 연계를 시켜야할지 명확한 정답이 없다고 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각각의 텃밭이 텃밭외부 공간과 긴밀히 연계되는 점은 없었다. 연계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또는 텃밭 내 프로그램에 의한 내용적 연계가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암두레텃밭은 상암월드컵파크 4단지와 6단지 사이에 위치한다. 단지 내 주민을 위한 텃밭이라고 보면 연계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마포구 주민을 위한 텃밭이며 단지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 단지를 벗어나면 북쪽으로는 상암DMC의 기업이 있고 남쪽으로는 노을공원, 하늘공원이 위치한다. 특별히 연계가 되는 점은 없다. 갈현텃밭 역시 유사하다. 주변은 주거지이며 연계될 수 있는 도시오픈스페이스는 없다. 갈현근린공원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향후 연계전략을 꾀할 수는 있다. 갈현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은평뉴타운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연계성 면에서 잠재력이 있다. 노들텃밭은 한강에 위치하는 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계를 꾀하기에 다른 텃밭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 내용적으로도 연계되는 면은 부족하다. 공간적으로는 한강북단의 이촌한강공원, 남단의 노량진배수지시민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림 4-8〉 상암두레텃밭 주변 아파트



〈그림 4-9〉 노들섬에 고립된 노들텃밭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공간의 연계 측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텃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텃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특별히 연계성을 고려해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 하였다. 상암두레텃밭에서 텃밭지기를 하는 참여자에 의하면 상암두레텃밭의 주변이 모두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과 공간 특성의 측면에서 연계되는 곳은 없다고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남쪽의 노을공원, 하늘공원과도 직접적인 연계내용은 없었다. 인근의 상암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는 교육적 기능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보이지만 직접적인 참여는 없다고 한다.

경작자들은 뒤쪽에 상암근린공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직접적으로 동선이 연결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연결이 된다면이라도 경작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두 개의 공간이 별개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다면 농사일에 더 집중하고 휴식은 집에 가서 하면 된다는 의견이며 텃밭에 앉아서 쉬는 것도 공원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갈현텃밭에 참여하는 농업전문가에 의하면 갈현텃밭의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연신초등학교, 연광초등학교, 연신중학교, 연천중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 농부로 참여하는 학생은 거의 없지만 지나가면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있다고 하였다. 텃밭을 교육의 차원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노들텃밭의 경작자에 의하면 텃밭 바로 앞에 버스가 서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패턴이 대부분이었다. 섬 밖으로 가기 위해서 10분 이상을 걸거나 버스를 타고 인근의 다른 공간을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경작자들은 농사를 짓고 농사일을 하다가 원두막에 앉아서 쉬고 싸운 음식을 먹고 이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디를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용산구에서 경작에 참여하는 단체는 내용적으로 이촌한강공원의 텃밭과 용산가족공원 텃밭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다고 하였다. 용산구 차원에서 도시농업의 연계전략을 수립하면서 노들텃밭을 연계할 것이라 하였다.

“현재는 수확물을 인근 사회시설에 기부하거나 주민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등의 외적활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텃밭에서 생산물이 나오는 것은 1년 중 한 때이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농사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연계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텃밭이라는 공간의 특성도 경작하는 것 외에는 아직 특별히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텃밭의 특성이 정해지면 다른 공간과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도시의 차원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명확한 해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 도시농업 전문가, 조 OO

(5) 종합 : 장소형성의 태생적 배경에 의한 접근성의 한계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텃밭에서의 접근성은 장소형성의 태생적인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도시텃밭은 접근성을 많이 고려해서 조성되고 있지 않다. 도시농업의 경향이 도시 유희지에 파고들어가 경작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텃밭이 고려한 것은 빈 땅이라는 점에 국한된다. 아직까지는 도시공간의 활성화 차원이나 도시녹지와 도시민의 욕구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닌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되는 장소 또한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중교통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공간의 하나라는 인식이 없는 편이다.

이런 연유로 이동시간, 접근동선, 공간의 연계에서 도시공공성을 충족시킬만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시텃밭으로의 접근성은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작자는 자연스럽게 낙오되거나 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접근동선이 불편한 경작자는 방문의 횟수가 줄어든다. 도시의 외곽에 있다 보니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기본적인 안내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텃밭은 도시계획상 필요한 정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간의 연계는 텃밭이 어떤 공간과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텃밭이 위치한 장소에서 주변의 공간과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

다. 도시텃밭은 조성된 장소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구책이 필요하다.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공간임을 인지한 경작자들과 도시농업전문가들은 문제를 스스로 개선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리고 이를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체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모든 도시텃밭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민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농업을 소개하고 함께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의 목표로 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한다. 텃밭의 공간 구조상 많은 사람이 함께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위치상 접근성이 더 좋은 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를 말하며 그 공간들에 텃밭이 생기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려진 땅을 주는 것보다 이왕이면 다 같이 쓰는 땅에서 약소하게라도 텃밭을 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원천적으로 도시 외부에 밀려난 장소에 텃밭이 만들어진 것이 텃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현재의 도시텃밭은 태생적인 한계의 상황에 놓여있고 그로 인해 물리적인 접근성은 일반적인 도시공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경작자와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태생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도시텃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반 도시민이 텃밭에 접근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도시텃밭이 활성화 될 여지는 있겠지만 도시전체의 시민, 도시 전체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이상적인 해답에 대한 내부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개방성 측면

본 연구에서 개방성은 공간을 이루는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방되어 있는 정도로 정의했다. 공간이 물리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이용자가 심리적,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느끼는 지에 대한 분석이다. 물리적 개방은 개방시간과 출입구, 경계부의 개방정도로 세부분류를 나누었고 심리적 개방은 긴장완화 공간의 유무, 사적공간과 사적경작물에 대한 소유의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개방성에 대한 물리적 측면 특성분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중점 질문문항은 <표4-2>의 내용과 같다. 물리적 개방은 출입구와 경계부로 심리적 개방은 긴장완화의 공간, 공적·사적 공간으로 나누었다.

〈표 4-2〉 심층인터뷰 개방성 측면의 질문내용

대분류	소분류	질문내용
개방성 측면	출입구	출입의 개방 정도와 출입구의 숫자에 대한 의견은?
	경계부	텃밭 경계부의 개방정도와 이에 대한 의견은?
	긴장완화공간	텃밭 내에서 개인 활동 이외 활동을 위한 공간유무는?
	공적·사적공간	사적공간의 개방정도와 두 공간의 경계에 대한 의견은?

출입구는 각 텃밭에서 출입구의 유무와 방문자에게 개방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출입가능 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경계부는 텃밭에서 주변 공간과 맞닿아있는 공간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긴장완화의 공간은 텃밭 내에서 경작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해 가능하고 사람들이 개방성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공적·사적공간은 도시텃밭이라는 전체적인 공적공간 안에서 텃밭의 사적용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조사하고 실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 출입구

출입구에 대해 제한된 출입개소와 통제가 가능한 출입구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문객뿐만 아니라 경작자의 방문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되 경작물의 도난방지를 위해 개방정도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경작자들 다수의 생각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노들텃밭은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정해진 개방시간이 있었다. 상암두레텃밭과 갈현텃밭은 정해진 시간이 없었다. 노들텃밭은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개방을 통제했다. 나머지 텃밭은 본인의 의지로 출입을 할 수 있다. 출입문의 여부로 개방시간이 결정되고 있다.

출입구는 상암두레텃밭의 경우 오른쪽과 왼쪽에 한 개 씩 있고 텃밭의 경계부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정식 출입구 2개 이외에 1개가 더 이용되고 있다. 갈현텃밭은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옆길에 정식 출입구인데 천주교연신내교회 옆길로 해서 갈현텃밭 뒤로 들어가는 길도 있었다. 사유지를 통과하는 길이라 권장되지 않는 출입구이다. 노들텃밭은 섬의 특성상 출입구는 하나로 제한된다. 출입구 맞은편에도 문이 있지만 공사현장과 연결되는 곳이다. 한강대교 우측의 노들섬을 통해 접근하는 사람은 섬을 돌아서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림 4-10〉 노들텃밭 출입구



〈그림 4-11〉 갈현텃밭 출입구

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텃밭의 개방시간과 관계없이 경작자들이 방문하는 시간대가 정해져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하였다. 보통 경작자들은 아침에서 정오 사이에 많이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해가 떨어지면 농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녁시간대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느낀다고 설명했다.

경작자에 의하면 아직 일반 방문자들이 많이 오는 텃밭이 아니고 거의 경작자들만 방문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출입구의 역할은 도난방지의 기능이 큰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난 방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감시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경작자끼리 서로 감시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작자들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마저도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입을 누가하는지 출입구에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작에 참여하는 도시농업 단체 소속 경작자에 의하면 출입구는 텃밭의 상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것이 개방성과 연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상암두레텃밭은 참여자들이 직접 출입구의 표식을 만들었는데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자존감을 느끼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텃밭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곳 장소를 알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간판이라 하였다. 갈현텃밭과 노들텃밭에도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였다.



〈그림 4-12〉 상암두레텃밭 출입구



〈그림 4-13〉 갈현텃밭 비공식 입구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다른 공간인 공원을 봐도 모두 출입구가 있고 적정시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텃밭이라고 해도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생각은 없는 것이 당연하고, 텃밭에 출입구가 있고 이용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공공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오히려 텃밭의 기능을 보전하는 측면의 기능이 중시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관리라고 덧붙였다.

(2) 경계부

경계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지나가는 도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지만 내부의 경작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실한 경계를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출입구에 대한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의견으로 출입은 출입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경계부는 확실히 차단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현장조사 결과 텃밭마다 상황이 조금 달랐다. 상암두레텃밭과 노들텃밭의 일부에서 철조망 펜스가 있었다. 상암두레텃밭은 도로와 인도에 인접한 경계부에 펜스를 설치했다. 텃밭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이다. 노들텃밭은 한강변에 인접한 곳에 안전을 위해 펜스를 설치하였고, 인도와 인접한 곳에도 펜스를 설치했다. 펜스를 친 이유는 경작물의 보호와 도난 방지의 목적이다. 갈현텃밭에는 펜스는 없었다. 공간 자체가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교의 벽과 산의 언덕이 자연스럽게 경계를 나눠주고 있었다. 다만 아래쪽의 사유지 텃밭과 맞붙어 있어서 경작자와 방문객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어디텃밭이든 관계없이 모두 도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경계부는 민감한 부분이라 하였다. 경계부를 확실하게 차단하되 일반 도시민에게 보이는 부분도 고려하여야 함으로 철조망 펜스보다는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솔직한 심경을 전달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 펜스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림 4-14〉 노들텃밭 경계부 펜스



〈그림 4-15〉 정리되지 않은 철조망 펜스

갈현텃밭의 경작자에 의하면 출입구의 개수와 위치를 확실히 해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경계부는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확실히 명시를 해서 오가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경계부의 차단기능이 확실하지 않은 텃밭이므로 민감하다고 하였다. 특히 밤에 오는 경작자는 거의 드문데 밤에 인근 학교 학생들이 와서 놀다가는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 일부 농부들은 그것을 슬럼화라고 말하며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야간 시간의 개방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점점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태에도 이르렀다고 봅니다. 아는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주지만 자주 경작자들이 바뀌면서 서로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텃밭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옆에서 도난을 해도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장소로서 일반인의 출입을 절대 제한할 수는 없지만 사적인 경작물을 생산하는 도시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장소는 적절한 개방정도와 적절한 방침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도시텃밭 경작자 대표, 심 OO

(3) 긴장완화 공간

긴장완화 공간은 경작자와 텃밭 방문객 등 여러 사람들이 텃밭 내 활동을 하면서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마주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다. 텃밭이 경작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 공간은 다소 긴장감을 일으킬 수 있다. 방문객들은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긴장완화 공간에 대해 대부분의 텃밭이 토지집약적으로 텃밭경작 시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소한의 시설로 평상과 원두막을 설치하는 것이 여건상 최선이라는 의견이다.

현장조사 결과 텃밭은 보다 많은 분할된 텃밭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집약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면적으로 선으로 분리되고 마주 보는 텃밭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뿐이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마주칠 수 있다. 텃밭 이외의 공간은 텃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상암두레텃밭은 세 텃밭 중 가장 면적이 작은 텃밭이다. 대부분이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통로이다. 경작지 이외의 공간에서 3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없다. 갈현텃밭은 텃밭 입구에 큰 원두막이 있고 텃밭 입구 주변부가 넓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다. 노들텃밭은 가장 면적이 크고 주통행로를 넓게 확보하고 기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긴장완화 공간도 충분했다.



〈그림 4-16〉 상암두레텃밭 여유 공간의 부족



〈그림 4-17〉 노들텃밭 벤치와 원두막

갈현텃밭의 관리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작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은 입구에서 텃밭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 앞 쪽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있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인사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원두막은 공통의 현안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개별참여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동체 텃밭에 참여하거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두막에 앉아서 교감을 나눈다고 하였다.

상암두레텃밭에서 텃밭지기를 하는 분에 의하면 두레텃밭은 규모가 작아서 따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한 공간은 없다고 하였다. 공동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작활동을 하면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게 장점이라 하였다. 다양한 텃밭 중 이미 수확이 되어서 공간이 확보된 텃밭이나 공간을 넓게 쓰는 경작자의 텃밭 앞에서 모여서도 충분히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들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노들텃밭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긴장완화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였다. 처음에 통로를 넓게 하고 원두막을 짓긴 했지만 잘 활용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 경작자들이 일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는데 그들이 부족해서 그늘에 있는 곳으로 모이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벤치와 원두막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편하게 쉬면서 모일 수 장소를 더 늘리고 그 공간을 넓게 확보해주는 것이 긴장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컸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18〉 갈현텃밭 원두막



〈그림 4-19〉 노들텃밭 보행로를 이용한 행사

경작자들에 의하면 가까이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자주 마주치면서 친해진다고 하였다.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별다른 긴장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조금 떨어진 텃밭의 경작자들과는 서먹한 부분이 있었다. 이들과 마주칠 수 있는 것은 휴식할 때와 특별한 행사를 할 때라고 하였다. 행사를 계획할 때와 실행할 때 서로 도어가면서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간은 관리 센터 또는 임시로 설치된 천막이었다. 천막 안에서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긴장완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과 밭 자체가 행동반경이고 이들이 붙어있고 바로 옆의 참여 농부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긴장완화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농사에 서툰 참여자가 많아서 서로 돕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교감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논두렁에 서서 담소를 나누거나 야참을 먹으면서 마치 농촌의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편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텃밭 별로 여건이 달라서 같은 환경을 가질 수는 없지만 텃밭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작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긴장감의 완화 측면은 반드시 공간이 필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중요한 것이라 의견을 피력했다.

노들텃밭 운영위원회에 의하면 경작자들 사이에서의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텃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히 쉬다갈 수 있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를 위해 노들텃밭은 경작의 풍경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원두막에서의 텃밭 경관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외부인과 내부 참여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텃밭을 신청한 것도 있죠. 제가 여기 주변에 오래 살았지만 이웃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웃이더라고요. 사실 얼굴들은 서로 알아도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서먹한 분들도 아직 좀 있거든요. 그런 게 긴장이라면 긴장이죠”

- 갈현텃밭 경작자, 홍 OO

(4) 공적·사적 공간

공적·사적공간에 대해 이 두 공간이 함께 있는 것이 텃밭 자체의 특성이고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본적인 이해는 도시텃밭 전체는 공적인 공간이고, 그 안에 시설로써 경작지 텃밭을 가꾸는 공간은 반공적인 공간으로 어느 정도의 사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유성이 있다고 해서 개방감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경작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농부들은 운영을 하는 시와 구에 이용료를 납부한다. 싸게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낸다고 한다. 이용료가 더 싼 텃밭을 찾아 이동한 참여자도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참가자에게는 경제적인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농부들은 경작지 텃밭을 분양을 받은 자신의 사적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였다. 직접 경작하고 수확하는 노동력의 대가성을 떠는 공간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임시적이지만 사적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라 덧붙였다.

공동체 텃밭에 참여하는 경작자에 의하면 공동체로 운영되는 텃밭은 비교적 사적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개인텃밭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소유이기보다 공동체의 소유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의 사적재산으로 보기보다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가능한 도구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림 4-20〉 사유 경작구역 임의로 경계 설정



〈그림 4-21〉 경작지 텃밭의 통행로 침범

도시농업 관련단체에서 참여하는 경작자에 의하면 그들을 경작지에서 수확한 것을 거의 대부분 공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경작하는 동안은 사적공간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단체에서 함께 와서 서로 교감하는 작은 장소이고 농사농법을 테스트하거나 새로운 작물을 시험해보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작자들에 의하면 낯선 사람들의 출입에 민감하다. 전체 텃밭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텃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텃밭 자체가 협소해서 지나다니기 어려워 작물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지나가면서 수확물에 손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는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모조리 가져간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였다. 아무리 전체 텃밭이 공동 소유이고 공적용도라 할지라도 텃밭을 분양받고 참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농부들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방문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텃밭 경작물은 엄연히 농부의 결실로 맺은 농부의 사유이거든요. 그런데 텃밭을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간은 같이 공유를 하더라도 현재 자라고 있는 수확물은 반드시 그래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확 후에 어느 정도 기부를 하고 있어요. 경작을 하는 동안만큼은 사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노들텃밭 경작자, 이 OO

(5) 종합 : 장소의 사용자 행위에 의한 제한적인 개방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텃밭에서의 개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인 개방 정도에서 폐쇄성이 나타나고 있고 심리적인 행태에서도 비개방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행위에서 기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는 농사행위가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노동으로 개인의 활동이다. 개인이

목표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므로 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모여서 하지만 목표는 개인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가족이 먹을 채소를 재배하거나 자신의 여가를 즐기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공공간과는 차이가 있다. 도시 텃밭은 농사라는 장소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유성을 띠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완화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모두가 자유롭게 만나고 스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특성을 지녔다.

그리고 도시텃밭에서 농사행위를 하는 시점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개방성이 나타난다. 겨울침과 밤에는 참여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겨울철에는 경작물도 없을뿐더러 농부도 사라지는 곳이 되어 일시적으로 버려진 공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장소행위의 결과에 의해 폐쇄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이다.

또한 농사의 행위에서 파생하는 것이 농작물의 도난이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텃밭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도 대비해야하며 텃밭 내부에서도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물리적인 개방을 가장 침해하는 요소가 농작물의 도난이다. 이 때문에 텃밭의 경계에 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담은 경관상에도 좋지 않지만 텃밭과 무관한 일반시민이 보기에 폐쇄적으로 보인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내부 행위와 외부 인식 모두 폐쇄성을 띠면서 개방감은 일반적인 도시 공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입구를 줄이자는 의견과 방문객의 현황을 엄밀히 파악하자는 의견 등은 내부 분위기를 경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도 대두되었다. 경작물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도시텃밭의 개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텃밭은 농촌에서의 농사활동과 유사함으로 농업과 농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공간이다. 경작자가 참여하는 시간이 정해져있고, 농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공간이다. 태생적인 장소행위를 도시공간에 맞게 조절하고 행위에서 파생되는 폐쇄적 특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쾌적성 측면

본 연구에서 쾌적성은 이용자가 공간 내부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쾌적함을 느끼는 것의 여부로 판단했다. 시설의 측면과 청결한 상태에 대한 만족여부를 포함하였다.

쾌적성에 대한 물리적 측면 특성분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사항은 <표4-3>의 내용과 같다. 편의시설, 환경생태로 나누었다.

<표 4-3> 심층인터뷰 쾌적성 측면의 질문내용

대분류	소분류	질문내용
쾌적성 측면	편의시설	텃밭공간에 필요한 기본시설은 구비되어 있는지?
	환경생태	생태적 측면 현황에 대한 만족과 그에 대한 의견은?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벤치 등의 시설과 문화행사를 위한 문화시설물, 농사에 필요한 필수 농기구의 지원여부 등 편의시설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휴게 공간과 오픈스페이스의 유무로 쾌적성을 분석했다. 환경생태는 도시텃밭의 환경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필요요소 등에 대한 것이다.

(1) 편의시설

편의시설에 대해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텃밭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되다 보니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화장실과 급수시설이었다. 그리고 경작자와 참여자들을 위한 관리센터 및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크게 불편한 사항은 아니지만 텃밭 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장조사 결과 상암두레텃밭은 텃밭 내 공간이 협소하여 텃밭 밖 인도와 도로에서 임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암두레텃밭은 농기구 보관함과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어진 상태다. 수도시설은 사용할 수 없어서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서 쓰고 있었다. 갈현텃밭 역시 농기구 보관함과 관리센터가 있다.

화장실 1개소를 생태용과 일반용으로 나누어서 사용 중이다.

경작자들에 의하면 상암두레텃밭은 자체적으로 생태화장실을 만들었다. 하지만 구석에 있다는 점과 생태적인 불결함을 느끼는 경작자가 있었다. 이들은 때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텃밭과 인근 야산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면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특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인근의 도시민은 이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에 제기했다고도 하였다.

갈현텃밭과 노들텃밭도 유사하다. 생태화장실은 화장실을 이용하면 비료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수세식이 아닌 점에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받아들이기는 하되 조금은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시농업단체 전문가에 의하면 부대시설로 문화행사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작자들의 모임과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다. 특히 겨울철도 텃밭은 쉬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 이용계획과 새해 운영방침 등을 세워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도시텃밭의 센터가 협소하고 많은 일을 하다보니 센터로서의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급수시설과 벤치 등은 자발적으로 운영 및 설치하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4-22〉 노들텃밭 관리센터



〈그림 4-23〉 갈현텃밭 관리센터

노들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노들텃밭은 11월 경 교육 및 회의 공간의 컨테이너를 마련했다. 공간이 넓진 않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공간이 없을 때에는 온라인으로 일방적인 공지를 하는 방식이었고, 현장에서 만나더라도 집중력이 흩어져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행사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동용 천막을 사용해서 야외에서 진행 중이다.

갈현텃밭에 참여중인 전문가에 의하면 도시텃밭에는 휴게공간과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들텃밭에 비해 갈현텃밭과 상암두레텃밭의 행사 횟수가 적은 것은 오픈스페이스 공간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었다.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쉴 때 같이 모여서 쉬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 환경생태

환경생태에 대해 텃밭 내 상태가 더 깨끗하고 쾌적하면 좋겠지만 텃밭 자체의 특성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었다. 전반적으로 공원이나 다른 녹지공간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인들의 방문이 적은 직접적인 이유로 생각하진 않았다. 텃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농촌 같은 텃밭임을 인지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도시텃밭 내의 환경관리는 노들텃밭은 지원센터 2인, 갈현텃밭은 관리보조 2인, 상암두레텃밭은 텃밭지기 3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주로 경작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텃밭의 면적에 비해 주도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내부 참여자 및 관계자와 외부 참여자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주 공간을 방문하고 사용하는 사람들과 일반 방문객의 기준이 달랐다.

세 텃밭 모두 특별히 생태적인 문제가 보이진 않았다. 다소 정리되지 못한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환경의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생태화장실과 농사 부산물 등의 관리가 필요해보였다.

경작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도시텃밭을 농촌의 풍경을 지닌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사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가지 오염물질과 부산물 등이 장소 내에 흩어져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작자들에게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인식되었다. 어지러운 현장을 바로바로 치우기보다는 일을 다 끝나치고 치우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때때로 그날 치우지 못하면 며칠 후에 치울 수도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통행로 등에 쌓이면서 다소 불편함을 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경작자들 모두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경작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인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였다. 환경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텃밭 별로 운영방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경작부산물물을 다른 경작지에 옮겨 놓는다든지 하는 행태가 일어나는 게 큰 문제라 지적했다. 관리자들이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리자들이 맡은 일이 다양하다보니 공간을 쾌적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경작자 스스로의 몫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부 경작자는 도시텃밭 내의 오염에 대해 서울시에 민원을 넣은 일도 있다고 하였다. 자생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장소관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림 4-24〉 주변에 쌓여 있는 농사 부산물



〈그림 4-25〉 노들텃밭 생태화장실

(3) 종합 : 쾌적성의 한계에 대한 공감과 변화지향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텃밭의 쾌적성은 시설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 모두에서 우수하지는 않다. 쾌적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도시인가 농촌인가 하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풍경과 어떤 환경이 텃밭에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 내부 도시농부는 텃밭 그대로를 자연의 일부로 쾌적하게 느끼는 반면 일반 방문자는 그 반대로 느끼고 돌아간다.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과 다양한 환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 자체를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쾌적성에 대한 주관적 기준이 다르다고 하여 외부인의 평가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내부 경작자와 도시농업 전문가들은 도시텃밭에서 느끼는 쾌적성의 기준을 일반 도시민의 기준에 부합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태화장실을 야외에서 이용해야만 하는 예전에 모습에서 일반 규격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변화이다. 내부에서는 괜찮다고 느꼈을 지도 모를 쾌적성의 기준을 좀 더 도시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다.

부족한 시설에 대한 내부 민원은 많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마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도시텃밭의 정체성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 열린 사고로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과 참여 욕구 등이 더 높아진다는 의견이다.

“여기 화장실을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비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모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화학비료를 못 쓰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화장실은 더럽다고, 음식물 퇴비는 구석으로 옮겨달라고 건의사항이 많아요. 처음에는 다 이해할지 알았죠. 저는 지금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린 아이들도 오고하니 청결하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노들텃밭 운영위원, 정 OO

4. 지역성 측면

본 연구에서 지역성은 오랜 기간 이용되고 인지되면서 이용자 자신의 환경으로 기억되고 것을 의미한다. 지역성의 의미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의식적 공간이며 그 장소의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지역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기억되는 그런 장소로 정의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텃밭이기보다 텃밭이 지역의 자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측면이다.

지역성에 대한 물리적 측면 특성분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문항은 <표4-4>의 내용과 같다. 인지성, 장소적 의미, 경관요소로 구분하였다.

<표 4-4> 심층인터뷰 지역성 측면의 질문내용

대분류	소분류	질문내용
지역성 측면	인지성	지역의 도시텃밭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장소적 의미	이곳 도시텃밭만의 특수성과 상징성에 대한 의견은?
	경관요소	텃밭 이외 다른 경관적인 요소가 존재하는지와 의견은?

인지성은 도시텃밭이 지역에서 도시공간으로 인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텃밭 공간을 지나면서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쉬운지를 분석하였다. 장소적 의미는 이 장소가 도시 내와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밖에 장소가 갖는 상징성, 사람의 활동이 반영되는 장소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다. 경관요소는 경작공간의 텃밭만이 아닌 도시공간의 한 종류로서 경관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였다. 텃밭이 비교적 경관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소분류를 지역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하였다. 세 요소가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충족될 때 텃밭이 지역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인지성

인지성에 대해 관련자들은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는 아직 잘 인지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텃밭 공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농업과 도시텃밭이 아직 경작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관심 있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현장조사 결과 텃밭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텃밭에 바로 근접한 거리로 다가가야 했다. 20m 정도만 떨어져도 텃밭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세 텃밭 모두 텃밭이 주변에 있다는 안내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 아직까지는 텃밭에 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경작자뿐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텃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인지성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도시공간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인상을 주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설문결과 관계자가 아닌 경우 인지성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측정되었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도시텃밭이 경작공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형성 등 지역의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를 위해 특별한 행사를 할 때마다 텃밭의 입구에 현수막을 거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온라인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막상 오는 사람만 오는 경우가 많아서 고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작자에 의하면 지역의 주변인들이 텃밭의 존재와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동네 지인에게 알려주어서 동반참석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참여하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공감했다.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거나,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알기는 쉽지 않고 지인들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인지도 측정을 위해 만난 일반인에 의하면 매일 주변을 지나면서도 버려진 땅인지 텃밭인지 분간이 안됐다고 하였다. 텃밭으로 쓰긴 쓰되 서울시와 구청

등의 공공의 운영으로 되고 있는지 몰랐고 동네 분들이 빈 땅을 쓰는 것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 농사행위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정식으로 인정받은 텃밭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 비로소 이해한 경우이다.

텃밭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는 텃밭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텃밭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경작을 할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의 텃밭은 녹색 채소들의 경작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도 텃밭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배추, 상추, 무, 고추 그리고 감자, 고구마 등이 대다수의 텃밭을 차지하는 경작물이다. 농사와 관련하는 다양한 경작물을 볼 수 있게 하고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인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노들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노들텃밭은 다른 텃밭과 다르게 모내기 논의 있고 양봉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면이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인지되고 방문자가 증가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상암두레텃밭의 운영위원에 의하면 두레텃밭은 마포구의 지역텃밭이라는 인지도가 있다고 하였다.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몇 개 안되는 텃밭 중에 하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인기가 많다고 하였다. 마포구 도시농업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주변의 다른 텃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하면서 인지도가 더 올라갔다고 하였다. 또한 두레텃밭은 조성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갈현텃밭의 운영위원에 의하면 갈현텃밭은 본래 인근의 지역민이 불법 경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역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였다. 최근 도시농업공원 계획이 나오면서 인근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시험으로 1년 운영을 했지만 지역주민 외에는 크게 인지성을 갖고 있

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서울 전반적으로 이용가능한 텃밭이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는 있지만 갈현텃밭의 위치가 외곽에 있다는 점에서 인지성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림 4-26〉 멀리서 잘 인지되지 않음



〈그림 4-27〉 사유지와 구분되지 않음

노들텃밭의 운영위원회에 의하면 노들텃밭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텃밭이고 서울시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면서 인지성 면에서는 높은 편으로 보고 있었다.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서울 도시민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하였다.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인지성 면은 점점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작자들 사이에서도 서울시에서 상징적인 입지에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참여자가 지역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치구의 텃밭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서울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다.

(2) 장소적 의미

장소적 의미에 대해서 공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데에 시간과 여러 여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상징성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가졌던 공간에 텃밭을 조성했다면 어느 정도 장소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빈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 장소적인 의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했다.

현장조사 결과 도시농업 전문가와 경작자들 모두 특별한 장소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갈현텃밭은 국궁장이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요구로 텃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었다. 노들텃밭과 상암두레텃밭은 쓰이지 않는 유휴지를 잠시 동안 쓴다는 의미에 한정된다.

갈현텃밭의 구성에 참여한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갈현텃밭은 시민단체와 도시농업단체, 지역민이 합심하여 만든 결과라고 하였다. 지역에 만들어질 공원을 지역민의 요구로 관철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갈현텃밭이 앞으로 지역의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지금까지는 장소의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상암두레텃밭의 조성과정에 참여한 운영위원에 의하면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단체와 마포구 주민들이 직접 경작할 땅을 찾아내었고 지속적으로 이를 관할 부서에 요구하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갖는 의미는 없어도 텃밭이라는 의미자체가 장소의 의미인 것이라고 하였다. 본래는 다른 용도로 개발될 땅이었지만 이 공간을 새로운 장소로 만들려는 시도가 관철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였다.

노들텃밭의 구성에 참여한 전문가에 의하면 노들텃밭은 갈현텃밭, 상암두레텃밭과는 다르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성된 텃밭이라 하였다. 어느 정도 도시농업 단체의 노력이 수반된 것은 사실이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텃밭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자발적인 시민의 모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큰 관심을 갖는

지역이고 도시농업 전문가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노들텃밭만의 새로운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도시농업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그런 노력을 진행 중이라 덧붙였다.

경작자 대표에 의하면 경작자 및 도시농업 관계자들 중 본래 이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수는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텃밭이 만들어지면서 장소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라 하였다. 도시 공간으로 특정한 장소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닌 점은 사실이고 지금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특수한 점과 상징적인 점을 부각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농사와 이 장소를 연결 짓는 것은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 4-28〉 버려진 땅을 채워가는 텃밭



〈그림 4-29〉 사람이 만드는 장소의 의미

“도시는 계속 바뀌는 것이잖아요. 도시장소는 무엇이든 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현재 텃밭이지만 본래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사용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미 장소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도시 공간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도시의 죽은 세포 중 하나를 살렸다는 점만으로도 장소적인 의미는 충분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도시농업 전문가, 구 OO

(3) 경관요소

경관요소에 대해 아직은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서 다른 녹지공간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게 하며 외부적으로는 인근의 경관자원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계획이 필요하고 고심 중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텃밭 내의 경관의 수준을 높이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경작물을 일변화 하지 않고 유실수와 꽃 등을 심어서 다채로운 풍경을 보이는 계획이다.

현장조사 결과 텃밭별로 경관요소의 잠재력은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상암두레텃밭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 위치하면서 주변은 아파트뿐이라 경관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밖에서는 자칫 이질적인 요소로 판단될 수 있었고, 내부에서는 특별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없었다. 갈현텃밭은 텃밭의 지대가 낮아지는 동쪽으로 멀리 북한산이 보여서 경관이 우수했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서 경관이 개방되어 있었다. 노들텃밭은 한강에서 서울도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텃밭 내의 경작물은 자율에 의해 배치되고 있으며 경작물의 경관을 고려하기 보다는 농사가 잘되는 요소와 관리하기 쉬운 요소로 선택되고 있었다. 텃밭 이외의 장소에 경관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텃밭이 자연스럽게 도시 경관에 녹아들 수 있는 곳이 좋은 입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텃밭을 도시 한복판에 위치시키는 것과 다른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위치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였다. 안에서 밖을 보는 것과 밖에서 안을 보는 두 차원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의 입지라는 생각이다. 현재 상암두레텃밭과 갈현텃밭은 인근의 근린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한데 특별히 경관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경작자들에 의하면 도시 속에 위치한 텃밭은 도시와 대비되는 느낌이 강해서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 상암두레텃밭의 경우 아파트와 대비되는 농사현장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근 주민

중에 도시텃밭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갈현텃밭의 경작자에 의하면 도시 속에 있는 텃밭보다 자연에 가까운 텃밭을 선호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에서 경작일을 하는 것이 자칫 이질감을 보여줘서 경작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낀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갈현텃밭은 뒤에 공원도 있고, 산이 있어서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농사일이 좋아서 참여한 것도 있지만 농촌과 시골이 그리워서 참여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 텃밭이 좋다고 하였다.

노들텃밭의 관계자에 의하면 노들텃밭은 도시공간의 차원에서 경관적으로 훌륭한 입지라고 하였다. 한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이 보이는 등 도시의 경관이 훌륭한 장소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최적화하여 느낄 수 있게끔 조성은 못 한 상태라 하였다. 뒤쪽의 문을 통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고 내부에는 나무가 심겨있어서 경관이 확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한강변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이 없어서 계단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노들텃밭의 경작자에 의하면 텃밭 내에서 외부경관이 잘 보이지 않고, 한강변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강의 섬이고 도시 한복판의 섬이라는 배경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했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들섬 투어 프로그램이 잠시 운영되긴 했지만 외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효과적이진 않았다고 한다.



〈그림 4-30〉 도시풍경과 조화로운 전원풍경



〈그림 4-31〉 북한산을 바라보는 갈현텃밭

“텃밭은 볼 게 없다고들 하잖아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녹색 식물 위주 이거든요. 배추와 무, 고추 등이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텃밭 자체로 경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다양한 색과 다양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연구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대학생들 텃밭은 그런 것을 연구도 해요. 그런데 경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텃밭 경작지 자체보다는 텃밭 전체 공간의 차원에서 나무를 더 심는다가 전망대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외부인들도 편하게 경관을 즐기고 쉬다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노들텃밭 경작자, 최 OO

(4) 종합 : 지역의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단계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성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일부는 완전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에 없는 장소로 인식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오히려 안 좋게 보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지역성 역시 장소형성의 태생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지역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조성 위치를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접근성과 다른 점은 접근성의 문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지역성은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도시텃밭을 개간하는 일이 도시공간을 개척하는 일로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다. 버려지고 비어있는 땅을 활력을 주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자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인식은 없는 상태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였다.

경작행위와 경작물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내부 자체의 경관을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태이다. 도시텃밭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특히 외부에서 느끼기에 지역의 자원으로 인식된다면 도시공공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장소라는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제3절 비물리적 측면의 분석

각 요소는 장소별로 현장조사의 내용과 전문가 심층인터뷰, 경작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종합하였다.

1. 주체성 측면

본 연구에서 주체성은 텃밭 내에서 주민의 참여 및 다양한 주체의 참여정도에 관한 것으로 정의했다. 주체성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발성과 일상성을 조망하는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세부분류는 참여의 정도, 개인의 역량으로 나누었다. 참여의 정도에서는 참여 이유, 방문빈도, 체류시간 등을 조사하고 개인의 역량 측면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특성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

주체성에 대한 비물리적 측면 특성분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질문문항은 <표 4-8>의 내용과 같다. 세부적으로는 참여도와 개인의 역량 부분으로 나누었다.

<표 4-8> 심층인터뷰 주체성 측면의 질문내용

대분류	소분류	질문내용
주체성 측면	참여도	참여동기, 참여빈도, 텃밭에 체류 및 참여의 지속성은?
	개인의 역량	개개인간에 발생하는 갈등 및 부족하게 느끼는 점은?

참여도는 텃밭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의 참여 동기와 참여빈도, 체류하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매년 경작하는 텃밭 경작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해 참여욕구가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개인의 역량은 운영지침대로 참여자들이 잘 따르고 있고 발생하는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1) 참여도

참여도에 대해 도시텃밭은 경작자의 참여에 의해 생산 활동이 일어나고 농사 활동은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공간에 비해 참여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의견이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참여의 빈도가 높을수록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참여자체의 횟수를 높이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현장조사 결과 각 텃밭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었다.

① 참여 동기

경작자 대표에 의하면 도시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 얻는 수익은 매우 낮다고 하였다. 이용자들이 경작하는 경작물은 사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가치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시농부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자 대부분의 참여 동기는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여 먹기 위함이며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참여의 동기는 생산 활동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그 밖의 동기는 부가적으로 보았다.

경작자들에 의하면 경작하고 수확해서 먹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것이 더 싸다는 사실을 전한다. 특히 화학비료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것만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관리는 더 어렵다고 하였다. 농사경험자에 의하면 수확량과 수확물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애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도시텃밭의 농사일은 애착을 들여야만 수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여를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텃밭 농지가 원래 농지였던 땅이 아니고 도시 유희지였기 때문에 농사에 부적절한 땅도 발견된다고 하였다. 농사와 땅, 식물에 대한 애착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한다. 실제로 초보 농사꾼들은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며, 중간에 포기하여 텃밭 곳곳에 유희텃밭도 발견되고 있는 상

태라고 하였다.

노들텃밭 운영위원회에 의하면 텃밭 운영차원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 동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계획하는 것이라 하였다. 대부분이 농사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초보 농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할거리 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운영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할 일이라는 의견이다. 농사관련 프로그램 이외에는 큰 경험이 없지만 점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여서 참여 욕구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경작자들은 계속 실패해도 좋으니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경험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텃밭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참여 동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생산활동 그 자체이지만 이것이 발전하면 2차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이 동기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서로 생산활동의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도시농사를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돕고 함께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는 것이다. 이런 만남이 생산 활동을 하고 싶은 목적을 가진 도시민에게 참여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 있었다. 앞으로도 참여 동기를 다변화하고 그 차원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그림 4-32〉 유기농 음식 만들기



〈그림 4-33〉 소일거리를 위해 경작일 참여

자료 : 생태보전시민모임

② 체류·지속성

텃밭 관리자들에 의하면 도시텃밭을 방문하는 경작자들은 보통 주중과 주말로 나뉜다. 세 텃밭 모두 방문자는 주말에 더 많았다. 일반인들은 주말에 오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농업관련 행사들도 주말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텃밭은 주중에도 자주 오는 편이고, 공동체 텃밭은 주말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경작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텃밭을 신청하는 경향이라 밝혔다. 그래서 시민텃밭이 경쟁률이 더 높고 평가를 할 때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체류시간에 대해서는 농사의 종류에 따라, 경작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작자는 농사일과 관련하여 체류시간이 일정히 정해져있었다. 체류시간의 구성은 경작과 휴식, 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초기에는 이 시간을 개인 및 소수의 집단 안에서만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자주 방문을 하면서 텃밭에 머무르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휴식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였다.

도시텃밭 운영위원회에 의하면 일반 방문객들의 체류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보통 일반인들은 지나가면서 잠깐 구경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고 보통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떠난다고 하였다. 볼 것도 없을뿐더러 휴식공간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운영위원들 및 경작자들은 외부인의 방문빈도를 높이고, 체류시간을 늘리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인들은 텃밭을 이질적인 요소로 느끼고 있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참여하지만 평소에는 방문할 이유가 없었다.

지속성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보통의 텃밭은 3월에서 그해 12월 혹은 익년 1월까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배추·무 농사와 김장 시기에 맞춰 끝나는 것이다. 각 텃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이 부분은 공통적이다. 그리고 끝나면 새로운 농부가 참여하게 된다.

한 장소에서 2년을 경작해 본 경작자에 의하면 농부들은 자신의 텃밭에 아주 큰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같은 공간 내에서도 한번 자신이 사용했던 텃밭에서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이다. 직접 땅을 일구고 가꾸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같은 정도로 땅을 일구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추첨에서 텃밭이 바뀌면 아쉬움이 많다고 하였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지속성은 참여 욕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오래 농사를 지은 경작자일수록 방문 횟수가 더 많고 경작물의 상태, 텃밭의 보존 상태도 더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급적 다음 해에도 경작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규로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우선은 지금 사용하는 텃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시나 구청과 협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경작자에 의하면 경작자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지속성에 관한 최우선의 요구는 텃밭공간의 지속적인 확보였다. 지속성과 관련해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원하는지 아닌지 보다 이 땅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땅인지에 대한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다른 땅으로 이주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신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텃밭에서 계속 경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불안요소였다.

“참여는 사실 당연합니다.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신청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자주오고 애착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작물이면 실제로 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작자들은 경작물을 관리하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이유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행사를 하거나, 주변인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자꾸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경작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공간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 도시농업 전문가, 안 OO

③ 주기·빈도

현장조사 결과 텃밭에 방문하는 빈도는 정해져있지 않다. 직장을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가로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하루에도 2번을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2번 오는 경우도 있다. 텃밭의 방문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다.

주기는 일반적으로 1년을 주기로 한다. 봄에서 가을까지 주로 참여하고 겨울에는 경작자들이 많지 않고 방문빈도도 높지 않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나면 참여자의 약 70% 정도가 새로 바뀌게 된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경작물의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문은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매 달 경작자 회의를 하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권장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작자의 참여빈도는 경작물의 구성과 관계있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은 도시농부들이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경작물을 권장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주기에 대해서는 농사는 매년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봄이 오기 전 겨울에 다시 돌아오는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고민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덧붙였다.

노들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노들텃밭은 방문자가 직접 방문 기록을 작성하고 있고, 이는 연말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텃밭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빈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상암두레텃밭의 운영위원회에 의하면 계절별로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는 권장재배작물을 결정하였다.

“봄에는 상추나 시금치, 여름에는 열무, 쪽갓, 양상추, 가을에는 무하고 배추, 쪽파가 좋아요. 이렇게 권장을 해서 1년 내에 많은 수확물을 거두는 동시에 참여율도 높이는 것이죠.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텃밭이 일변도로 똑같이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죠. 다만 자주 올 수 있게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농업 전문가, 배 OO

(2) 개인의 역량

개인의 역량에 대해 참여자가 중요한 만큼 개인의 역량이 장소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이었다. 개인별 역량과 함께 공동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도시텃밭을 공공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경작자들이 처음 추첨이 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고 하였다.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필수적이고 관리자와 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 개인의 역량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운영지침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도시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여러 운영지침 등이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금지된 화학비료를 뿌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인접 텃밭의 경작자와 공존하는 태도가 부족한 경작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 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었고 일부 지침은 다소 모호하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운영과 관리 면에서 부족한 개인의 역량은 교육을 통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덧붙혔다.

도시텃밭 운영위원회에 의하면 개인의 역량 부분은 강제성도 없거니와 판단기준도 어렵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수확물의 50%를 소외계층에 기부한다고 했을 때, 그 수확물의 50%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량 부분은 참여자 개인의 몫이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높이는 것은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설명했다.

경작자 대표에 의하면 개인의 역량 문제로 상호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텃밭과 텃밭 사이에는 작은 통로로 쓰이는 경계부가 있는데 이 경계부가 점차 줄고 들고 있다는 것이다. 양쪽의 경작자가 더 많은 경작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모두를 위한 통로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경

작공간이 좁아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경작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버려야 할 부산물 등을 남의 텃밭에 두고 가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였다. 농촌이라면 서로 아는 사이이기에 자연스럽게 각자의 할 일과 삼갈 일이 정해져있지만 도시민은 경험이 없어서 거기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도시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바로 옆의 텃밭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경작자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동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작자도 더러 있다고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처의 텃밭들을 하나의 작은 공동체로 묶어서 공동체별로 모임을 갖게 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참여율이 낮거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도 참여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표 4-8〉 상암두레텃밭 운영지침 협약서

1. 분양기간은 ‘분양일로부터 ~ 2013년 11월 30일’ 입니다.
 2. 분양기간 이후에는 파종하거나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3. 친환경 도시생태농업에 적극 동참하고 실천합니다.
 4. 화학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비닐(멀칭)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도시텃밭 자재, 시설 등을 아끼고 파손, 분실 시에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6. 도시텃밭 내에서는 음주 및 취사행위를 하지 않고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갑니다.
 7.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가. 본인 텃밭 관리 철저(주변 고랑 등 정리, 제초작업, 작물관리 등)
 - 나. 이웃 농작물 훼손·수확 금지 등
 8. 텃밭을 훼손·변경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양도·임대·교환하지 않습니다.
 9. 개인의 실수에 의한 손해는 모두 자부담 처리합니다.
 10. 작물 도난에 대해서는 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텃밭 외 출입 제한된 지역은 공원 등 보호를 위하여 출입하지 않습니다.
 12. 텃밭주변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13. 이외의 사항은 별도 지시사항이나 공지사항 등을 준수합니다.
- ※ 텃밭 관련 정보를 문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자료 :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참여시민 공모 신청관련 서식

(3) 종합 : 참여를 통한 주체성의 인식 제고

종합적으로 볼 때 주체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도 높고 개인의 역량도 만족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주체성은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텃밭은 참여가 빈번한 장소이다. 경작자들은 일상적으로 오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장소이다.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텃밭에서 경작자들은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도시텃밭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인 것으로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체성의 단계를 나뉘야 한다. 참여 자체가 모든 주체성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체적인 행동이 개인적인 범주에 머물러있다면 도시공공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공공 공간의 측면에서는 공동의 관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장소 내에서 경작자 개개인의 활동의지는 높은 편이다. 경작자들은 공원에 가듯 편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노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오는 곳이다. 산에 올라야 한다는 목표처럼 일정량의 일을 하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한다. 이를 1단계의 주체성이라고 본다면, 2단계의 주체성은 개인 경작 이외의 다른 것への 참여의지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작자는 1단계에 머물러있었다. 자신이 직접 경작에 참여했고, 지속적으로 텃밭에 오기를 원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도 즐기고 있다.

현재 도시텃밭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가진 참여자를 공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농사를 돕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공동체의 개념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이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개인의 주체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작의 지속성 보장과 참여빈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자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체 측면

본 연구에서 공동체 측면은 개인이 아닌 공동이 조직을 형성하거나 같이 활동하는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개인이 모인 공동체와 도시농업 단체 소속의 공동체 그리고 그 밖의 별도 공동체를 조직 후 참여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공동체 측면에 대한 비물리적 측면 특성분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인터뷰 질문문항은 <표 4-9>의 내용과 같다. 공동체 형성과 공동체 활동으로 나누었다.

<표 4-9> 심층인터뷰 공동체 측면의 질문내용

대분류	소분류	질문내용
공동체 측면	공동체 형성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공동체 활동	어떤 활동을 기획하거나 참여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의 도시텃밭이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체에 관한 부분은 공동체 형성과 공동체 활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공동체 형성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과 공동 참여의 정도로 구분하였다. 공동체 조직의 종류와 개수를 조사했다. 공동체 활동은 모임의 내용과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였다. 공동체 내부에서 느낀 경험과 활동을 비롯해 공동체가 외부 요소와 만나서 만들어내는 것을 조사하였다.

(1) 공동체 형성

공동체 형성에 대해 공동체는 텃밭 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는 대상지 텃밭 모두에서 내부 공동체가 활발히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다. 공동체의 규모는 동네와 동아리 등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그룹이 많았다. 공동체 형성은 개개인의 의식과 관련이 되는데 개인들의 참여 동기가 공동체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지적되었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도시텃밭의 공동체는 텃밭이 가진 지향점에 따라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단위별로 공동체의 조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공동체는 내부에서 조직되는 공동체와 외부의 공동체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공동체가 어울려있는 상황이고 향후 도시텃밭이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공동체 구성의 방향은 내부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활발히 교류하는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텃밭은 모든 텃밭에서 대표가 선출되는 방식이 많다고 하였다. 텃밭 구획별로 조를 만들고 텃밭이장, 조장, 구역장 등의 대표자를 뽑는다. 이 대표자가 공동체 활동이나 형성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운영회의에도 참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 현재 상암두레텃밭은 12개조로 운영되며 12명의 조장이 있다. 12명이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노들텃밭 역시 12개 시민텃밭별로 1명씩 이장격인 대표자를 선출했다. 이장은 12개의 가족 텃밭의 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수로 보면 50여명의 대표로 볼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경작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옆 텃밭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조직을 활성화하는 장애라고 덧붙였다. 상암두레텃밭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이 서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갈현텃밭과 노들텃밭은 비교적 규모가 커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갈현텃밭 경작자에 의하면 기존에 불법경작을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많아서 잘 알고 지냈지만 서울시의 텃밭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아직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나타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1년간 운영되었지만 동네 이웃이외의 새로운 공동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노들텃밭 운영위원장에 의하면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텃밭 이외에 공동체 텃밭의 단위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공동체 텃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소속이거나 혹은 새로 공동체를 만들거나 해야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 만들어진 공동체 보다는 기존의 조직이 참여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민텃밭보다 공동체텃밭이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참여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텃밭였다. 그동안 노들텃밭에는 텃밭보급소, 서울한살림, 농사짓는변호사모임,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등이 참여했고 아직도 참여중인 단체도 많음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체 경작지를 공동체 조직내부의 운영방침에 따라 사용한다. 공동체 조직 내에서 새로운 공동체 및 개인에게 다시 분할하거나 그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공동 경작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림 4-34〉 인텔리겐치아 동아리 공동체

자료 : 인텔리겐치아



〈그림 4-35〉 로드스콜라 공동체

자료 : 로드스콜라

지역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시농업단체에 의하면 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를 다시 10개의 그룹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의 학교 동문, 지역의 사회적 기업, 지역 내 출판사, 협동조합, 도시농부학교 교육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체 텃밭을 공동체 조직에게 분할하는 것이다. 이렇

게 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 안에 10개의 공동체를 두어 텃밭 1 구획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단체는 용산구에 있는 다양한 조직을 모아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텃밭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들텃밭뿐만 아니라 용산구의 다른 텃밭들과 연계하여 네트워크가 형성돼있다.

공동체 단체로 참여중인 경작자에 의하면 공동체 내부에서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 단체 안에서도 각자가 따로 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지역의 단체라면 더더욱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참여하는 집단별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타조직과는 만날 기회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서 공동체를 조직해 참여한 공동체에 의하면 공동체 텃밭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들텃밭의 인텔리겐치아의 경우는 전체가 같이 참여하고 수확물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사와 관련한 동아리로 노들텃밭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참여가 내부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였다.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의 공간에 농사를 지으면 내부적인 공동체를 형성한 경우이다.

갈현텃밭의 씨앗들협동조합은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가 교육과 농사기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홍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끈고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둘이상만 모여도 공동체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크고 작은 단위의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회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 텃밭에 대한 활용방안을 각 단체별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동체 텃밭 평가방식에도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텃밭 운영위원, 배 OO

(2)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에 대해 많은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 공동체가 프로그램에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도시농업전문가에 의하면 내부 활동은 내부 운영진과 관리자 등에 의해 계획되고, 외부 활동은 참여하는 공동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된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내부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공동체 활동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자체에서 하는 활동은 모내기 행사, 김장 행사, 경작 행사, 수확 행사 등 매년 할 수 있는 주기적인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텃밭 내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참여자의 참여와 활동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작자 대표에 의하면 현재 대부분의 활동은 교육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매년 경작자가 바뀌고 새로 시작하는 농부가 많아지면서 교육은 필수 프로그램이라 하였다. 다만 교육이외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현실이라 덧붙였다. 이외 프로그램은 봉사와 기부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각 공동체 별로 직접 활동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소란스럽거나 경작활동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은 경작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도시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외부 단체의 활동은 참여 공동체 성격에 따라 활동의 성격도 규정된다고 하였다. 대상지의 세 텃밭 모두에서 공동체 단체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조직이 많은데 이들의 활동은 1차적으로는 농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차적으로는 경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행사가 많다고 하였다. 참여하는 단체의 주체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 이들이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활동의 내용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공동체 단체로 참여중인 어반비즈서울에 의하면 최근 도시양봉을 갈현텃밭과 노들텃밭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하였다. 텃밭의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별통을 설치하고 양봉가 교육과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해 2~3회 채밀행사를 하고 경작자를 대상으로 꿀을 나눠주는 등의 기부행사도 하고 있었

다. 서울시 청년허브 구성원과 예술단체인 논아트발아트의 구성원이 함께 구성한 소소모모라는 단체는 노들텃밭 내에 카페를 만들었다. 경작지 내의 허브를 이용하여 차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체 음악회 등의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경작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텃밭의 공간을 활용하여 참여자들과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도시텃밭이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인데 보다 더 자유롭고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참여했다고 하였다. 경작자들끼리 서로 어울릴 수도 있고 외부 방문객과 경작자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고 하였다.

노들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노들텃밭은 규모가 크고 경작지외에 쓸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그 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활동들이 장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텃밭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텃밭의 용도와 프로그램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활동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도시농업 전문가에 의하면 각 텃밭은 외부 단체의 활동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텃밭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프로그램 제안을 요청하고 공동으로 기획한다. 아직은 프로그램들이 다양성 면에서 부족하고 여러 공동체와 동시에 맞물려 발생하고 있진 못하지만 발전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었다.



<그림 4-36> 정기 활동 모내기

자료 : 노들텃밭 홈페이지



<그림 4-37> 외부에서 참여한 공동체 활동

자료 : 소소모모 페이스북

(3) 종합 : 다양한 공동체 속 내실의 부족

종합적으로 볼 때 공동체 형성은 잘되고 있으며 공동체 활동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 형성은 단위별로 여러 종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 단위, 경작지 주변, 참여자 모임 등이다. 두 세 개의 가족단위가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형성은 되고 있는 상태이다.

공동체 활동은 기본적으로 그 주체를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다. 도시텃밭 장소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주체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외부의 단체가 도시텃밭을 근거지로 행사를 여는 경우이다. 음악회를 한다든지, 파티를 한다든지, 음식 기부를 하는 등의 일이다. 후자의 경우는 모내기 행사를 한다든지, 양봉 체험을 한다든지, 고구마 막걸리를 만드는 등의 일이다.

텃밭을 운영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참여집단이 가급적 텃밭을 주도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근거지로 삼고 한 텃밭에서 깊이 있는 활동들이 생성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텃밭과 관련 없는 행사들을 하면서 일반 도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려는 의지이다. 그래서 공동체 단체에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의무를 주고 있다. 각각의 단체는 자신들의 역량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체 활동은 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각각의 공동체가 하는 행사들은 대개 자체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결국은 도시 공공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내부에서 하는 활동에 한정되고 있다. 모내기 행사, 농업 교육 등이다. 이 자체로도 다양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하는 수요자가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로 여러 행사들을 했지만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경우는 매우 드는 상태이다.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의 주체성은 있는 상태이고 다양한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는 이들이 잘 껴여있지 않은 상태이다. 경작의 질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협력적 과정 측면

본 연구에서 협력적 측면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협의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사회의 시설로서 공공을 위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협력적 측면에 포함하였다.

협력적 측면에 대한 비물리적 측면 특성분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문항은 <표 4-9>의 내용과 같다. 협의와 공론, 운영의 공익성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표 4-9> 심층인터뷰 협력적 측면의 질문내용

대분류	소분류	질문내용
협력적 측면	협의와 공론	공론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협의의 정도에 대한 의견은?
	운영의 공익성	공익적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에 대한 의견은?

협의와 공론은 운영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의견수렴이 되는 정도와 그 필요성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의사항들과 앞으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운영의 공익성 부분은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였다. 텃밭 자체에서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1) 협의와 공론

협력적 측면에 대해 많은 참여자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의하고 공론이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공동 현안에 대해 모두가 현실을 공감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다소 일부 그룹이나 개별 몇몇 사람들에 한정되어있는 점을 공감하였다. 조성과정에서 관리와 이용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거치면서 장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각 대상지 텃밭에서는 협의와 공론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농업전문가에 의하면 많은 참여자들이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농업 단체의 경우 조성과정에만 참여하거나 경작과정에만 참여하는 등 전체 텃밭의 생성과 관련하여 일부분만 참여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한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도움을 못주더라도 전반적으로 계속 협의해가고 의견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특히 행사과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각각 자신들이 주체하는 단체만 주도적이고 함께 만드는 협의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도시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행정, 교육, 재료, 기획, 운영, 관리 등 여러 주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어야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피력한다. 또한 농업과 공간과 관련한 전문가, 연구진 역시도 필요함을 설명했다. 운영위원들 일부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의무성을 부여하고 참석률이 떨어지면 배제하는 방법도 고안 중이라는 의견이다.

운영위원장에 의하면 협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협의를 구성하고 이끌어갈 사람의 부족이 현 단계에서의 한계라는 점을 피력했다.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도시텃밭과 도시농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텃밭은 현재 자생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인 중에 20% 정도는 유능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시농업 단체로 참여중인 전문가에 의하면 텃밭보급소와 여러 도시농업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텃밭관리원 또는 교육자 등을 양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의기투합할 수 있는 잠재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공동체를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일은 긴 시간과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현재 텃밭 매뉴얼이 없다보니 특히 공공성 측면과 농업공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전했다. 전문가 및 실제 경작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고쳐나가면서 현장 기록 등을 함께하는 방식이 필요하

다고 덧붙였다.

경작자 대표에 의하면 매니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기술뿐만 아니라 도시농업과 텃밭의 공간에 대한 철학, 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도시농부 개별적으로는 경작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니저의 역할이 협의체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는 도시텃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은 직접 경작하는 사람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폭넓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기획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주체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작자에 의하면 자체 운영과 관리를 위해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작자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 점과 의견이 잘 개선되지 않는 점 등이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경작자 대표로 훌륭한 분들이 운영회의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표자가 특정 소규모 인원들을 대신하는 것은 아닌 점도 한계로 지적한다. 경작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내부에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소규모 그룹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들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매니저의 역할은 도우미라고 설명한다. 너무 많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또한 그 이하에 머물러서도 안 됨을 지적한다. 하지만 적정 매뉴얼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모든 텃밭의 매니저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는 개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음을 말한다. 공론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협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 설명하였다.

공동체 도시농업단체로 참여자하는 단체장에 의하면 많은 도시텃밭에서 도시농업관련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초대하지만 자리를 채우는 경우로 전략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참여이유는 경작활동을 하면서 더 나은 텃밭을 만들어

가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공동체 단체가 수단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과 단체가 포함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도시농업에 관련한 예산은 많지 않고 일부는 줄어가고 있음을 얘기한다. 아직까지 텃밭은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임을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자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좋은 도시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며 이런 부분을 참여자 모두에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텃밭 내의 특정 전문가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그림 4-38〉 텃밭 운영회의



〈그림 4-39〉 텃밭 프로그램 공동 협의

“단지 경작을 하기위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도 많아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나 텃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 느낀 여러 점들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관리자는 관리자이고 행정은 행정이고 협의체라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그냥 철수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참여를 유도하면서 공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도시농업 관련 단체장, 황 OO

(2) 운영의 공익성

운영의 공익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하였다. 다만 공공의 땅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었고 참여자들도 대체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도시농업전문가에 의하면 가장 쉬운 것은 교육과 봉사, 기부라고 설명한다.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농사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해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을 밝히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김장 행사를 통해 나눔 행사를 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지역의 봉사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고 운영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도시텃밭 관리자에 의하면 참여자들 중에 재능기부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 중이라 하였다. 아직까지는 개개인의 재능보다는 공동체 단체의 재능에 기대고 있다고 하였다. 공동체 단체가 텃밭 구성원 모두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텃밭의 공간 중 사용한 곳을 도시민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 중이다. 음악회, 운동회, 캠프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작자 대표에 의하면 공익을 위한 일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기부행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다. 텃밭의 주요 행사인 농산물 판매나 교환, 김장 행사 등에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을 기부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판매수익금이나 김치 등을 사회시설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익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익성과 관련하여 분양방식의 공익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 추첨식으로 하고 있지만 연장자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게 좀 더 공간을 배분해주는 것도 사회적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도시텃밭 경작자와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면 겨울철 사용에 대한 방법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겨울철에 버려두는 공간으로 나두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사

용할 수 있어야 공공적인 활용이라는 의견이다.

관련 공무원에 의하면 운영을 행정에서 관리단체에게 이양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공익적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특히 선발조건이나 평가방식 등이 공익에 합당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열린 체계를 가져야 할 것을 주문한다.

“둘이상만 모여도 공동체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크고 작은 단위의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회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 텃밭에 대한 활용방안을 각 단체별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동체 텃밭 평가방식에도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텃밭 운영위원, 배 OO

(3) 종합 : 체계적인 협력 과정의 필요

종합적으로 볼 때 다양한 주체들이 흩어져 있어서 협력성은 다소 낮은 상태이다. 도시텃밭을 조성하면서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협의체가 필요한데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다만 도시농업단체에서 열성을 보이면서 일부 시민이 조성부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일부에 머물러 있고 텃밭이 운영된 이후에도 공론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협력적 과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공동체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에서도 도시농업을 유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시공공성의 부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3절 연구결과의 요약

전반적으로 현재의 도시텃밭은 물리적인 특성에서 도시공공성의 요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소가 형성되는 태생적인 과정에서 접근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장소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한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쾌적성 역시 환경의 문제와 시설 여건의 부족 등으로 도시민 모두가 원하는 상태로는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성면에서는 기존의 지역적 맥락에 기댈 수 없고 새롭게 지역의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원점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물리적인 특성에서도 도시공공성의 요소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율은 높지만 개인의 역량의 한계와 참여가 개별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동체는 종류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활동이 텃밭을 공유하는 전체 구성원을 아우르지 않고 특정 단체나 활동을 하는 단체 자체의 범주에 머무르는 한계가 나타난다. 협력적 측면 역시 공론의 부족과 협의체 구성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점은 내부 구성원들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보완하고 있다. 자체적인 노력은 비물리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교육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협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공론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는 물리적인 한계보다 비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더 강하다.

도시텃밭은 다른 도시공간에 비해 태생적으로 자생력이 필요한 공간이다. 그 자생력이 비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측면의 공공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시공공성의 요소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텃밭 구성원과 참여자들이 이를 공감하고 있는 것이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과 및 제언

도시텃밭은 새로운 도시공간의 유형으로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장소이다.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각 지자체는 앞 다투어 유치하고 있다. 도시의 장소로서 도시텃밭은 공공적인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연구의 결과 현재 도시텃밭은 살펴 본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점이 발견된다. 이는 도시농업 단체나, 참여하는 경자자 또는 특정 집단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면서 행정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하고 현재 상황을 조사를 한 것은 도시농업과 도시텃밭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도시공공성의 관점으로 도시텃밭을 이해할 때 도시 공공 공간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일부는 태생적인 면이고 일부는 후천적인 면이다. 일부는 물리적인 요소이고 일부는 비물리적 요소이다. 공간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기준 속에서 도시텃밭의 양상과 현상을 이해하고 도시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더 나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요소의 한계는 태생적인 배경의 문제와 농사라는 행위 그리고 예산과 관심의 부족이 이유이다. 비물리적 요소의 한계는 시간의 부족이라는 현상적인 부분이 대두되고 동시에 사람들과 장소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기획력의 부재가 존재한다.

도시농업은 본격적으로 육성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시간의 문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동체 형성, 텃밭의 외부 파급력은 시간이 필요한 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를 꼭 시간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현재의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

도시텃밭이 도시 공공 공간으로서 이용되는 것에는 깊은 고찰이 요구된다.

근린공원 내에 텃밭을 설치하는 공원인지,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공원과 같이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생산경관은 세분화될 수 있다. 갈현텃밭은 전자에 가깝고, 노들텃밭은 후자에 가깝다. 주말농장에 대비하여 도시 안에 텃밭들이 생겨났는데 보다 더 공공성을 갖고 도시에서 작동하는 도시텃밭이 필요한지 되물어 볼 수도 있다.

한편 텃밭의 목적이 공동체 조직 형성인지 먹거리 생산인지, 정확한 지향점을 가질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 노들텃밭을 물리적인 도시공공성의 관점으로 보면 공동체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목적에 맞게 물리적인 요소와 비물리적인 요소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결국에는 텃밭이 가진 다양한 활동의 층위에 따라 그리고 주체의 층위에 따라 텃밭의 지향점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텃밭의 농사 활동이 1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점과 매년 경작의 시작과 수확의 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시텃밭은 특이성을 갖는다. 반복이라는 교훈을 통해 공간의 잠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는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와 함께 한계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텃밭이 가진 환경적 조건을 수용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문제들을 극복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공공적 활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많은 참여자와 각각의 참여단체가 상생의 자세로 보완해나간다면 공공적인 도시장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량과 가능성은 도시의 농업인에게 달려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세 개로 한정되었다. 상암두레텃밭과 갈현텃밭, 노들텃밭이 전국의 많은 텃밭을 대변할 수는 없다. 보다 더 공공적인 텃밭이 되어야 하거나, 많은 주체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공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례를 선택하였지만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그리고 대상지는 도심지 유희부지에 위치한다. 갈현텃밭은 도시농업공원 개발지로 확정이 되었지만 그동안 유희부지로 오랫동안 존재했다. 상암두레텃밭과 노들텃밭은 유희부지이다. 유희부지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도시텃밭의 특성을 도출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공간의 물리적 측면 분석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텃밭은 개발이 확정된 이후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도시텃밭이 유희지에 근거하여 조성되고 있다. 이 자체가 도시텃밭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이들 도시텃밭은 확실한 이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도시 유희지로 할지라도 연구할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도시텃밭과 관련한 관계자들은 현재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더 나은 텃밭을 만들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는 물리적인 여건을 극복하는 것을 체득함과 동시에 비물리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텃밭의 특성을 알아내고 다루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향후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도시텃밭이 만들어지고, 도시농업공원 등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과는 다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에 의해서 탄생하는 텃밭들도 여전히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미흡한 점들이 발견될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론을 통한 도시공공성의 관점으로 도시텃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시텃밭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텃밭의 고유한 특성 가운데 도시공공성에 부합하는 요소를 조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의 시각에서 도시텃밭이 공공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였다. 도시텃밭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요소이다. 향후 갈현농업공원 등 도시농업공원과 도시텃밭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을 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 hou, Jeffrey, Johnson, Julie and Lawson, Laura, 이강오 외 (역)(2013).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 파주: 조경.
-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2011). 『도시농업』. 파주: 들녘.
- Hachisuka, Hiroko, Sakurai, Isamu, 김웅규 (역)(2012). 『지금이야 말로 도시農』. 서울:농민신문사.
- 안명준 외 10인(2012). 『텃밭정원 도시미학』. 서울: 서울대학교.
- Saito, Junichi, 윤대석, 류수연, 윤미란 (역)(2009). 『민주적 공공성』. 서울: 이음.

[연구보고서]

- 염철호 외 2인(2009).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학위 논문]

- 김진욱(2003). 도시공간활성화를 위한 기업참여 건축물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희영(2012).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호(2012). 도시텃밭의 운영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숙(201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수(2010). 도시 외부공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구현에 관한 연구 :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공공공간 Project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수(2010).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 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차희(2012). 도시농업 운영주체별 조성과 운영방식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길(2004).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2013).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언(2009). 동탄 도시농업공원 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호(2007). 시민적 자질로서의 공공성 개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재훈(2010). 주민조직 리더십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원(2005).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 강기남, 이종근, 김기황, 이만형(2007).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방안,” 『건설기술논문집』, 26(1): 167-176.
- 김미옥(2010).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공공성의 개념과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3(2): 3-12.
- 김진환(2010). “도심지 유희공간을 활용한 도시생활농업 추진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1): 98-103.
- 박지민, 윤정숙(2010). “도시 속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30(1): 101-102.
- 박진수, 김기수(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2): 35-52.
- 성종상(2008). “공공디자인이란 무엇인가? - 조경에서 본 공공디자인 : 하늘과 땅 사이, 더불어 즐기는 모든 것을 보다 더 근사하게,” 『건축과사회』, 11(-): 35-42.
- 유병규(2000). “도시근교농업의 복합산업화와 공간 활용,” 『농촌사회』, 10(-): 37-70.
- 윤희정, 조미경(2012). “연구논문 : 도시공원 진화상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도시농업

- 공원의 발전 가능성,” 『농촌계획』, 18(2): 81-90.
- 윤종국, 송대호, 김민수(2003). “도시건축경관의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2): 37-51.
- 이상봉(2011).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 -지역적 공공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1): 23-45.
- 이영범(2006). “영국의 공공건축 - 영국 도시개발에서 제도와 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성 확보방안,” 『건축과사회』, 6(-): 31-45.
- 이병준(201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지 확보방안 연구,” 『도시행정학보』, 25(4): 89-122.
- 장동현(2008). “도시농업의 인식 및 가치에 관한 연구,” 『지역과 농업』, 3(-): 99-120.
- 장동현(2009).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산업경제연구』, 22(2): 979-994.
- 장준호, 김은옥, 조지은(2010).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35(2): 61-70.
- 허주녕, 김태곤(2012).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선호와 가치평가,” 『한국유기농업학회 학술발표대회』, 2012(10): 375-384.

외국문헌

[단행본]

- André Viljoen, Katrin Bohn and Joe Howe(2005). Continuous Productive Urban Landscapes: Designing Urban Agriculture for Sustainable Cities. Oxford: Architectural Press.
- Butler, L. and D.M. Moronek(2002). Urban and Agriculture Communities: Opportunities for Common Ground. Ames, Iowa: Council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 Nordahl, Darrin(2009). Public Produce: The New Urban Agriculture. Washington DC: Island Press.

[학위 논문]

- Ayalew, Dawit Ashenafi(2012). Urban agriculture in Addis Ababa : the importance of producers'cooperatives to sustainability, M.A.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okyo.
- Knigge, LaDona(2006). Emerging public spaces in marginalized urban places: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ty gardens in Buffalo, N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at Buffalo.

[학술지 논문]

- Knigge, LaDona(2009).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community gardens, service and geographies of care in the US City of Buffalo, NY," *Geographica Helvetica*, 64(1): 45-52.
- Mason, David and Knowd, Ian(2010). "The emergence of urban agriculture: Sydney,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Agricultural Sustainability*, 8(1): 62-71.
- Mendes, W., Balmer, K., Kaethler, T and Rhoads, Amanda(2008). "Using Land Inventories to Plan for Urban Agriculture: Experiences From Portland and Vancouver,"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4(4): 435-449.
- Raxworthy, Julian(2011). "Gardening forms: landscape architecture and gardening in Sven-Ingvar Andersson' s garden at Marna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6-19.
- Thwaites, K., Helleur, E. and Simkins, I. M(2005). "Restorative urban open space: Exploring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human emotional fulfilment in urban open space," *Landscape Research*, 30(4): 525-547.
- Travaline, Katharine and Hunold, Christian(2010). "Urban agriculture and ecological citizenship in Philadelphia," *Local Environment*, 15(6): 581-590.
- Velegrinis, Steven and Weller, Richard(2007). "The 21st-Century garden City? The metaphor of the garden in contemporary Singaporean urbanism,"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2): 30-41.
- Wakefield, S., Yeudall, F., Taron, C., and Skinner, A.(2007). "Growing urban health: Community gardening in South-East Toronto,"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2(2): 92-101.

홈페이지 및 기타

제2회 도시농업박람회 국제워크숍 자료집(2013)

인천시 도시농업정책토론회 자료집(2013)

국제 사회적 경제 포럼 자료집(2013)

대안농정대토론회 자료집(2013)

도시농업 활성화 심포지엄 자료집(2010)

노들텃밭(<http://cafe.naver.com/ndfarm>)

갈현텃밭(<http://cafe.naver.com/galhyeonfarm>)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http://cafe.naver.com/mapofarm>)

씨앗들협동조합(<http://cafe.naver.com/waithongbo>)

도시농업시민협의회(<http://cafe.naver.com/dosinongupsimin>)

대안농정(<http://대안농정.kr>)

서울그린트러스트(<http://happylog.naver.com/seoulforest.do>)

서울시청(<http://www.seoul.go.kr>)

부록 : 인터뷰 대상자

심층인터뷰 대상자 소속 및 인터뷰 날짜

내용	소속	구분	인터뷰 날짜
심층 인터뷰	텃밭보급소	전문가	2013. 12. 17
	생태보전시민모임	전문가	2013. 11. 29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성·운영·관리	2013. 12. 11
	서울그린트러스트	조성·운영·관리	2013. 11. 07
	흙살림	조성·운영·관리	2013. 10. 05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조성·운영·관리	2013. 12. 08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조성·운영·관리	2013. 11. 13
	노들텃밭지원센터	조성·운영·관리	2013. 10. 10
	씨앗들협동조합	경작단체	2013. 12. 13
	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	경작단체	2013. 11. 12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경작단체	2013. 11. 08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경작단체	2013. 11. 30
	농사짓는번호사모임	경작단체	2013. 10. 13
	좋은세상만드는사람들	프로그램 및 경작	2013. 12. 01
	로드스폴라	프로그램 및 경작	2013. 10. 20
	인텔리겐치아	프로그램 및 경작	2013. 11. 16
	소소모모	프로그램 및 경작	2013. 09. 29
	서울도시양봉협동조합	프로그램 및 경작	2013. 11. 24
	에코11	프로그램 및 경작	2013. 12. 18
	노들텃밭 경작자 대표	경작자	2013. 10. 19
	갈현텃밭 경작자	경작자	2013. 10. 06
	노들텃밭 경작자	경작자	2013. 09. 28
	상암두레텃밭 경작자	경작자	2013. 10. 12
	총 23인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Community Garden focused on Urban Publicness

Yoo, Sibeom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ban agriculture plays a range of social functions in the city including producing safe food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veloping urban agriculture, which has been proven to be beneficial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Urban agriculture, which started in a small size in outskirts, now claims huge space in the middle of city. Expanding in volume and area in the city, urban community gardens are asked to perform new roles in urban space. Questions are raised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gardens as an urban public space.

Publicness contains a variety of concepts, representing abstract and comprehensive significance. Its concepts, however, have been restricted in terms of research effort in the field.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physical and non-physical elements of publicness. In the field of urban space research, the concept of urban publicness includes both visible, physical publicness and invisible, crucial social publicness. The contemporary concept

of publicness, which has been newly defined in recent years, contains the significance of urban publicness.

This study looked into urban community garden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ublicness, analyzing their specific features based on the several elements of urban publicness. The study reached conclusion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concept establishment, analysis framework setting, analysis of current state of subject lots, and empirical analysis of subject lots.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cused on establishing the public concept of urban community gardens via the theories of urban agriculture and urban publicness. A framework for analysis was set based on theories and expert opinions. A set of elements applicable to urban community gardens were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ublicness. Three subject lots were chosen among community gardens and urban agriculture park gardens of the types of urban agricultur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rough field study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ity farmers participating in the gardens, urban agriculture experts, and stakeholders.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accessibility to urban community gardens had limitations due to their innate background of formation from the physical perspective. Considering the trend of urban agriculture moving from unused land in the city to gardens, it is apparent that gardens have yet to be fully recognized as an urban space. The stakeholders accept the issue positively and are improving it.

The openness of urban community gardens also had limitations due to user behavior at the place. Overall, the openness of urban community gardens was low because it was centered around agricultural activities. Closedness emerged due to the lack of exchanges by the preference for individual labor activities and the need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

The amenity of urban community gardens was subjectively perceived by

their images. The internal participants found them pleasant and satisfying, whereas external visitors did not find them pleasant. Both city farmers and stakeholders sought after changes fit for the status of urban space, not being bound to agriculture and gardens, in order to overcome those differences.

The locality of urban community gardens remained at a low level because they held no place in the old memory of cities. They would be newly discovered or start in a discarded lot in many cases. Urban space would be re-discovered and write a new chapter in history thanks to gardens. It is thus time to make efforts to turn them into local resources, which requires the independent consciousness and pioneering spirit of participants.

The independence of urban community gardens was divided into two major parts from the non-physical perspective. The participants applied for a garden with a certain degree of independence and showed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field. Their independent consciousness remained individual and personal in many cases, which calls for its expansion across the entire space. It is required to encourage individuals to develop independence consciousness by inducing their particip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reconsider the perceptions of independence to expand it to all the members.

Urban community gardens were put active us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Many communities were formed with diverse community activities being performed. Such communities were either autonomous internal ones or external participation-based ones. While there were various activities carried out, it was a limitation that those activities exhibited individual nature. It is necessary to regard urban community gardens as a medium instead of just means and make organic plans for various activities.

There was a need to secure the publicness of operation and form a solid consultative group from the perspective of collaborative effort. Professionals were in need who were able to help various subjects check each other's

existence and regulate their roles. In addition, a system was also need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various groups related to urban community gardens including general citizens. There were limitations with the process of building public opinions and collecting voices from people. The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were high given the great independent consciousness and diverse communities.

The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community garden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ublicness. It is true that the current urban community gardens show many limitations as an urban public space, which is because of the overheated issues of urban agriculture and the exponential growth of urban community gardens. It is too early to say that they cannot be solved because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full-blown appearance of gardens in the city. Now is the time to understand the various patterns and phenomena today and induce and plan to correspond with urban publicness.

Keywords : Urban Community Garden, Urban Agriculture, Publicness
Urban Allotment, Urban Agriculture Space, Urban Publicness
Student Number: 2011-22348